

제7회 학생통일 글짓기대회 입선작

너에게 보내는 평화의 날개

- 운문집 -



통일교육원

발 간 사

서해교전 등으로 남북관계가 일시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최근들어 대내외적으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토대를 마련한 이후, 금년 9월 17일에는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됨으로써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상호신뢰와 평화정착의 기운이 싹트고 있습니다.

또한, 9월 18일에는 남북이 경의선, 동해선 연결공사를 동시에 착공함으로써 끊어진 남북의 허리가 복원되고 나아가 남북이 힘을 합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해·협력의 시대에 21세기 통일조국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건전한 통일관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해온 초·중·고생 대상 「학생통일글짓기」대회가 금년으로 7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11,339교, 552,275명의 많은 학생들이 대단히 훌륭한 작품들을 응모하였으며, 특히 이중 288명의 입상 작품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작품집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바람직한 통일관, 객관적인 북한관, 튼튼한 안보관 정립」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 9월

통일교육원장

김도천

〈차례〉

서울특별시 9

- 함흥으로 가는 기차표 / 11
- 하나뿐인 한민족 / 13
- 분단-나비의 꿈 / 15
- 원정역 / 17
- 폭죽 / 20
- 폭포앞에서 / 22
- 비둘기가 날 수 있도록… / 24
- 흔어지는 햇살일지라도… / 26
- 망향가 / 28

부산광역시 31

- 축구공에 실은 6월의 편지 / 33
- 어둠의 끝에는 / 35
- 고장난 시계 / 38
- 지우개 / 42
- 함께 / 44
- 귀향 / 46
- 내일은 올 것이라며 / 49
- 개화 / 52
- 마지막 소망 / 55

인천광역시 57

- 두고 온 고향 / 59
- 희망의 뜨개질 / 61
- 제2의 건국을 위하여 / 64
- 알까 모를까? / 66
- 동그라미 / 68
- 유원의 대지는 알까 / 70
- 할머니 눈물의 끝은? / 72
- 책상 위에 금 / 74
- 오-핀승 코래아! / 75

대구광역시 77

- 할아버지의 소원 / 79
- 슬픔 그리고 그 이후… / 81
-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 83
- 펑화 속의 통일 / 85
- 하늘 아래 어느 날 / 88
- 그 곳에는 / 91
- 통일의 계산법 / 93
- 이산가족의 슬픔 / 94
- 묵념의 망각 / 96

광주광역시 99

- 통일 / 101
- 우리 이제 손 잡아봐요 / 103
- 그날은 오리라 / 106
- 친구야, 사물놀이 하자 / 108
- 민들레 씨앗을 바라보았습니다 / 110
- 우리의 믿음 / 112
- 가만히 / 114
- 철마 / 116
- 통일의 증표 / 117

대전광역시 119

- 꽃씨 한 개 / 121
- 호랑이 풍맥이 이어질 그 날 / 123
- 채송화 / 124
- 통일 그리기 / 126
- 통일은 어디쯤 / 128
- 통일전망대 / 130
- 할머니의 기다림 / 132
- 남북한 삼쌍동이 / 135
- 통일의 그 날 / 138

울산광역시 139

- 통일이 된다면 / 141
- 휴전선을 넘어 / 143
- 새 / 145
- 지우개로 휴전선을 지울까? / 147
- 바느질 / 149
- 시간의 흐름 / 151
- 우리는 짹꿍 / 152
- 형제에게 / 154
- 그는 역류한다 / 156

경기도 159

- 그리움 / 161
- 하나 / 163
- 꿈꾸는 휴전선 / 165
- 너는 해님, 나는 달님 / 167
- 나 민들레 씨가 되어 / 170
- 보금자리 / 172
- 따로따로 50년, 함께했던 2박3일 / 174
- 한미새 / 176
- 사람을 그리며 / 178

기원도 181

- 도화지 속의 친구 / 183
- 동인은 단빛이 되어 / 185
- 남북이 한 마리 호랑이로 / 187
- 동인의 바람 / 189
- 나뭇잎 / 191
- 그 날이 오면… / 193
- 그리운 그 날! / 195
- 동인의 그 날 / 197
- 눈물의 세월 / 199

충청북도 203

- 사회시간 / 205
- 할미니의 꽃밭 / 206
- 편지 / 209
- 손잡고 놀고 싶어요 / 211

- 통일 꽃 / 213
- 통일의 길 / 216
- 이산가족 상봉 / 218
- 휴전선 / 220
- 할머니는 / 223

충청남도 225

- 48파 53 / 227
- 우리 할머니 / 230
- 저 대백산 기슭에서 먼동이 밟아온다 / 232
- 울 엄마의 끓이 되기 전에 / 234
- 금강산 아리랑 / 237
- 가슴에 꽃 피리라 / 239
- 현장학습 가는 날 / 242
- 우리 어머니 / 244
- 무지개다리 / 246

경상북도 249

- 통일 주머니 / 251
- 아기의 걸음마처럼 / 253
- 늙은 소녀 / 256
- 통일이 되는 날의 교실 풍경 / 258
- 풍경 / 260
- 꿈 / 261
- 만남 / 262
- 통일이 된 그 날까지… / 264
- 거래의 소원 / 266

경상남도 269

- 태극기 / 271
- 친구야 / 272
- 붉은 파도 / 274
- 나의 어머니, 태극기 / 276
- 붉은 꽃 / 278
- 2002 월드컵 / 280
- 태극기 / 282
- 태백의 매아리 / 283
- 하나된 월드컵 / 284

전카복도 287

- 다섯 손가락의 의미 / 289
- 민들레 훌씨되어 / 291
- 천조망 / 293
- 너를 초대하고 싶어 / 295
- 달힌 문을 두드려 / 298
- 옛날 이야기 / 300
- 평화롭고 작은 연못 / 302
- 바람 / 304
- 축제 / 308

전카남도 309

- 바람을 염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311
- 하나되는 그 날은… / 313
- 할머니의 소원 / 315
- 소망의 나무 / 317
- 헛별 따뜻한 집이 그립다 / 318
- 염원 / 320
- 6원의 아침을 열어가며… / 322
- 동무야 보아라 / 324
- 6원의 기다림 / 326

제주도 329

- 출렁이고 싶어라 / 331
- 가시밭길 앞에서 / 333
- 할배의 일대기 / 335
- 화분의 통일 / 337
- 내 작은 엽서를… / 340
- 풀잎의 편지 / 342
- 북한친구를 닮은 백구 / 344
- 소망 / 348
- 겨울바람 / 350

서울특별시

- 함흥으로 가는 기차표
- 하나뿐인 한민족
- 분단-나비의 꿈
- 월정역
- 폭죽
- 폭포앞에서
- 비둘기가 날 수 있도록…
- 흩어지는 햇살일지라도…
- 망향가

함홍으로 가는 기차표

김 기 탁

(서울서일초 5학년)

"할머니, 할머니!"

애타게 부르는

석희의 목소리

아직도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시지 않았나보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눈물로 평생을 보내셨다더니.

지금은 치매걸려

정신까지 놓으신

불쌍한 석희 할머니

"함홍가는 기차는 어디서 타네?"

때문은 전철표 한 장

손에 꼭 쥐고



매일 아침
고향가는 기차타러
집을 나가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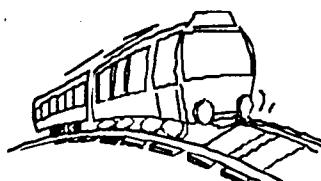
지금도 할머니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고향길을 묻고 계시겠지.

저 철조망을 지나면
합홍땅이 보일텐데…….

할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 까지

합홍행 열차가
힘차게 달릴 그 날까지

할머니!
오래 오래 사세요.



반쪽뿐인 한민족

송 우 영

(서울반포중 3학년)

죽도록 노력하여 경제대국 이룩하고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을 개최해도

온 국민이 새빨간 정열의 악마되고
선수들 피땀 흘려 16강 이루어도

왠지 내 마음엔 허전한 공허감이
즐겁던 내 마음에 못을 두드린다.

위대한 조상들의 문화유산 물려받고
뛰어난 머리들로 세계인을 놀래켜도

형제끼리 담 쌓아 서로 총 겨누니
하늘에서 지켜보면 목놓아 통곡한다.

거대한 물결타고 모두의 성원모아
반쪽뿐인 한반도를붉게 물들일 때

또 다른 내 동포는 푸른꿈을 안고
조국을 탈출해 다른 조국 찾아가니



어찌 그들을 잊고, 그들을 외면하고
언제까지 반쪽뿐인 성공에 취할까?

애들아! 우리 하루 빨리 곱게 자라
못다 이룬 평화통일 눈물로 이루자.

우리진정 하나되어 삼천리 금수강산,
동방예의지국을 무궁화로 채울 때

이산가족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눈물로 그 동안의 한을 풀을텐데

애들아! 그때 우리 다시 만나
웃으며 화해의 악수를 나누자꾸나.

그 이유없는 화해에 우리민족은,
전 세계에 하나뿐인 진정한 한민족



분단-나비의 꿈

구 본 주

(서울혜화여고 3학년)

분단을 품고 흐르는 임진강 앞
강 위를 맴도는 바람더러 키우라며
나비는 하얀 막으로 여린 생명을 꼭 담아 알을 낳았다.

얇은 막이 갈라지고
솜털 젖은 애벌레가 알 속에서 몸을 펴고 있다.
자신을 품었던 알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몸을 올린 잎사귀를 사각사각
베어 물 때까지
굽은 사연 담아 물결치는 강의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았다.

몸을 옮겼던 잎을 다 베어 물고
다른 잎 위에서 허물을 벗어
몸집이 커진 애벌레에게
50년 전 가족의 가슴에 칼을 들이민 후회의.

가장 먼 곳에 남겨둔 가족을 그리는
쓴 눈물로 임진강 물결을 만든다는



바람의 말은
임진강의 만조가 되어 작은 몸을 에워쌌다.

끝없이 잘게 우는 임진강 물결을
하나씩 알아가며 애벌레는
여린 몸을 움츠려 딱딱하게 굳어져갔다.

오랫동안 굳었던 애벌레의 등은
예전 여린 막이 그러했듯 갈라지고
젖은 날개를 파르르 떠는 나비가 되어
언젠가는 자신이 키울 희망을 낳으리 같
쓴 눈물을 흘리는 임진강 건너를
아직은 서툰 날개 짓을 하며 바라보았다.



월정역

우 단 비

(서울사당초 6학년)

할아버지 고향엘 가려고
할아버지 손잡고
월정역에 갔더니
기차가 누워서 잠을 잔다.

헌병 아저씨께서
"저 선하나만 넘으면 북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철마는 게으른 낮잠만 잔다.

월정역 사방을
휘이- 둘러보니
우거진 갈대밭에
철새들만 슬피울고

휴전선 돌담 밑에
버려진 신발 한 짝이
주인을 찾고 있다.



텅 빈 대합실은
바람만 잠시 쉬어갈 뿐
아무도 없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원산 가는 어른표 한 장,
어린이표 한 장 주세요"
라고 말하신다.

그리나 텅 빈 대합실을
돌아나온 메아리만
퀭한 눈으로 바라본다.

월정역 광장에 나와
금강산 가는 철교 밑을 바라보니
그 옛날 불비며 오고가던
금강산 가는 철교 밑으로
무심한 강물만
하루종일 찔찔대며 울고 간다.



할아버지께서
"통일이 되면 저 철교가
다시 봄빌거라고"
라며 말씀하신다.



폭 죽

김 예 솔

(서울정원여중 3학년)

꽃송이는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날리는데
눈물 맷힌 명이 든 가슴은
부는 바람마저 쓸쓸하다.
한 손에 잡힐 듯 가슴 찡한 정경이여!
나는 가로막혀
뛰놀지 못하는 노루보다
마음껏 날개짓하는 새가 되리라.

흔들리는 꽃술과
동요되는 밤하늘 아래
폭죽이 터질 듯
맺혔던 무언가가 분출하고
반발한 마음 한 가운데가
두 손으로 얹혔다.
소리 없이 다가선
두 그림자가 일치할 때,
날리는 영롱한 눈꽃은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폭죽이 터진 듯 수놓은 무언가는
마음 한 구석의 북을 울리고
폭죽이 터진 듯 경이로운 찬란함은
진흙처럼 풍쳤다.
폭죽 소리 요란하듯,
울부짖음도 희망찼다.
설움의 그 하늘도 닦아버렸다.

두 봉우리가 하나되어
날개를 펴고 소리치는 그 날의 해
고뇌의 눈물을 박차고 고개를 치켜든
눈물 맷힌 풀잎처럼,
그 환희의 빛은 땅을 가르고
바다를 솟구치게 한 축복이리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꽃송이는
마음의 이슬을 한껏 흔들어 놓았다.

아우성치는 광명에 찬 빛줄기여
그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
폭죽이 터짐과 함께 흘러오는
꽃송이의 내음이여!

폭포 앞에 서

신 은 해

(서울한영고 3학년)

골짜골짜 오리나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입 다문 바위 아래 이끼들을 보듬으며
쌓여온 찬 적막들을 고요히 다스리다

무너져라 내던지는
순결한 도포자락
묵은 살 셋기우라 찢어지고 부숴져도 한없는
그리움들이
사자후를 토해낸다.

이 물
저 물
갈라져서
예까지 흘렀구나

기나기인 기다림이 머언 거리를
달렸구나.

이제사
어우러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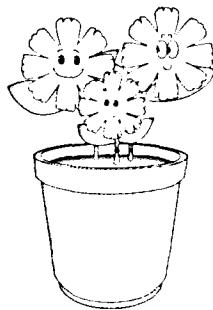


신명나게 놀자 휘모리로

하얀 속살 드러내는
흐드려진 웃음 아래

이 물이 소리하고
저 물이 춤을 추고

한바탕
여울림 위로
따사로운 햇살 햇살



비둘기가 날 수 있도록……

오 진 문

(서울신흥초 5학년)

광장에 모여앉아
모이를 쪼는
비둘기 페 속에서 빠져나온
잿빛 비둘기 한 마리
내가 그려놓은 통일 포스터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포스터 속에 비둘기는 날마다
다시금 저 푸른 하늘로
마음껏 날개를 치며
날아갈 수 있도록 해줄
그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심술궂은 아이의 낙서 때문에
날개가 찢겨 나가고
눈동자가 긁히고
부리에 빨간 크레파스가 뭉개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을 꽂고 있는 나는



힘겨워 하는 비둘기를 일으켜 세우고
풀로 부러진 날개를 이어주고
찢겨나간 눈동자는
나의 맑은 눈동자로
채워줍니다.

언젠가 통일을 물고 올 비둘기는
내 통일 포스터속에서
끝없이 넓은 하늘로 올라가
기쁨의 새날을 맞이 할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가까운 것 같습니다.



흩어지는 햇살도 아닐진데……

김 진 선

(서울구로중 3학년)

공기 속에 흩어지는
햇살도 아닐진데.

땅위에 터져 버리는
벗방울도 아닐진데

그 누구 이유를
알려주는 이 없이

왜 이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나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햇빛과 달빛도 아닐진데.

서로 다른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것도 아닐진데

왜 우리는
서로의 손끝조차
잡을 수 없나요.

하지만



악마 같은 쇠날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하나의 소망이
하늘에 닿을 때면
우리가 한줄기
햇살일지라도
당신께서는 나비속에 깃들고
나는 꽃잎 위에 내려앉아
다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한 방울의
빗줄기일지라도
당신은 갯물을 타고
나는 시내를 따라
언젠가는,
서로의 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망 능 가

신 정 아

(서울양천여고 3학년)

아내는 아이의 손을 잡고 파르스름한 달빛 아래서
차마 고향만은 둉질 수 없노라 했소
근심어린 눈의 그이를 달래며 곧 돌아오마 약속했을 때
그 길로 모든 것이 마지막이란 사실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 때 아내의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았을 것을
부여안은 팔도 차마 풀지는 못했을 것을

전망대를 찾는 당신은 이곳에서 매일 갇이 나를 보았다 하오
먼 북녘을 향한 나의 눈가에 내린 이슬과
휑하니 뚫린 가슴으로 부는 시린 바람을 보았다 하오
별겋게 녹슨 철조망은 나의 옛 상처를 다시금 찢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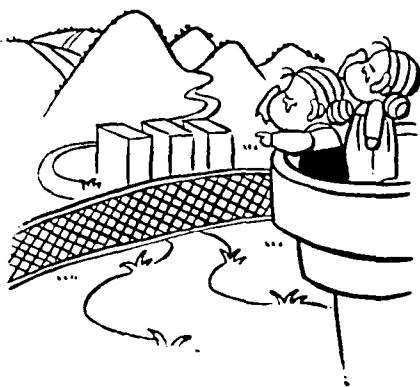
절망의 앙금처럼 가라앉은 안개는 강 너머를 온전히 덮어
나는 고향도 가족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소

홀로 따라놓은 술을 이제는 마시리다
잔에 비추인 그리운 얼굴들이 떨구인 눈물로 흐려지기 전에

임진강은 가슴앓이 하는 이의 그리움으로 흐르고
강 위로 흐르는 흰 물새는 그리움 가진 이의 넋일 게요



나는 가겠소 꿈에서나마
이제는 영영 아득한 잃어버린 나의 옛 고향으로



부산광역시

- 죽구공에 실은 6월의 편지
- 어둠의 끝에는
- 고장난 시계
- 지우개
- 함께
- 귀향
- 내일은 올 것이라며
- 개화
- 마지막 소망

축구공에 밟은 6월의 편지

김 병 수

(배산초 3학년)

같은 하늘 아래
내일은 함께 있을
가깝지만 먼
나와 닮은 친구에게

한줄 바람따라
낮은 물결따라
산너머 오늘은 너에게로
여기 월드컵의 합성
우리의 목소리 들려주고파

누나 오빠 하나 된 어깨동무
붉은 물결 한마음 되어 흐르고
소리높인 박수응원
발밑 축구공에 힘을 실으니
이것이 바로 한민족의 뜻인 것을

힘껏 차 올려보지만
받을 수 없는 축구공이기에
오늘의 합성만을 전할 뿐



안타까운 마음
훗날을 위해 접어들 밖에

너와 내가 우리 되는 날
하나의 축구공이 유타리를 넘는 날
우리의 염원 통일도
감격의 골이 되어
뜨거운 가슴을 흥분시켜도 좋으련만

친구야!
오늘은 메아리조차 듣기 힘든
네 목소리지만
내일은 함께 운동장을 누비며
숨소리조차도 느껴보자꾸나



어둠의 끝에는

박 정 임

(주감종 1학년)

지금 나의 앞에는
짙고 또 험한
길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바로 앞조차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둡고

너무 멀어
끝이 어딘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합니다

머뭇거리던 나는
문득 어릴 적
할머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둠을 두려워 말아라
어둠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끝에 빛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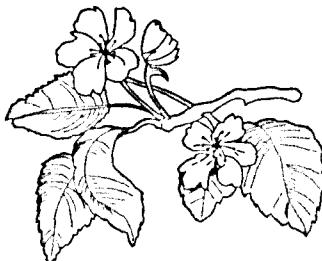
그렇습니다
어둠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끝을 알 수 없어도
나는 달렸습니다

그 길은 바로
통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상이라는 돌부리에
발이 걸리고,
이념이라는 가시나무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나는 달릴 것입니다

달리면서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고 긴 길을 함께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둠의 끝에는
항상 빛이 있다는
희망의 진리를……

어둠이 길수록
빛은 더욱 밝아진다는
희망의 진실을……

남북한 청소년들은 믿습니다.

고장난 시계

이 슬

(문현여고 2학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계가,
시침은 6에서
분침은 5에서
6시 25분에 멈춰버렸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시계였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는 알람이 되지 않아
늦잠을 잤습니다.

제 생활은
고장난 시계 하나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조국이 반으로 갈라지던
6월 25일,
사람들은, 그리고 그 때 상황은
지금 나처럼



엉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가족을 찾지 못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슴속에,
6시 25분에 시침, 분침이
멈춰버린
자기만의 생활이자
보물이었던 시계를
가슴속에 품고,
그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전,
고장난 시계를
가만히 놓아두어선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

내일 고치러 갈 껌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긴건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고장나지 않을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냥 두어선
제 생활 행복하지 못할 껌니다.

북한에 있는 할머니들,
우리 남한에 있는 할아버지들,
저랑 같이 시계 고치러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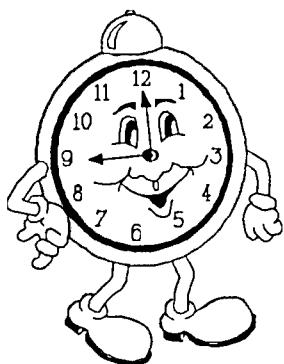
고장난 시계
가슴속에 묻으려만 말고,
다시 시계가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같이 웃으면서 고치러 가요!

가슴 많이 아팠고,
지금도 아플 텐데



이제 같이 고치고
즐겁게 함께 생활해요.

엉망된 생활,
이제는…
웃으며 함께 할 수 있을 껌니다.
함께 고쳐나간다면…….



7.1 우개

손 상민

(봉래초 4학년)

나는 지우개가
되고 싶어요
새 하얀 지우개로
6.25 흔적
지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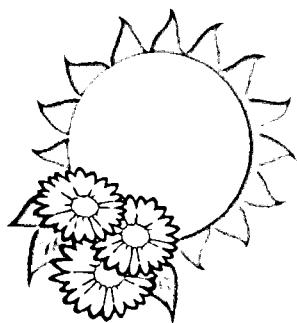
피로 얼룩진
칠조망을 지우고
알록달록
무궁화 꽃씨 뿌려줄래요

나는 나는
이산가족 아픔을
지울래요
퍼렇게 멍들어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지우고
기쁨과 희망을
넣어 줄래요.



나는 나는
김정일 아저씨의
마음을 지울래요
또다시 싸움하려는
아저씨의 마음을 지우고

하나로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자고 말할 거예요.



한 끼

김 영 선

(덕명여중 2학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라면
너와 내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눈물과 설움으로 굳게 쌓을린
저 어둡고 상처 패인
분단의 벽도

작은 꿈나무
여린 뿌리들이
분단의 땅 속에
얽히고설키어

푸으른 잎을 피워내고
숲을 이루어
민족의 설움을 씻기울
그 날

우리의 마음입니다



소원입니다

겨레가 이어지고
산맥이 이어지고
한반도에 무궁화가
끝없이 만발하면

우리 어제 놓친 손을
지금에야 다시 한 번 움켜쥐고
가슴을 맞대고
안겨봅시다

너희와 우리
너와 내가,
너와 나
우리가 함께

귀향

최 슬 기

(덕문여고 2학년)

당신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엔,
천리를 배웅 나가
맞이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날엔,
앞집, 옆집 이웃
모두 손잡고 나가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의 귀향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하얀 미소를
기억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돌아오지는 마세요
그 환한 웃음이
나의 뺨 위로



흐를지도 모르니까요

붉은 선혈의 전쟁 이후
멀리 사라져 버린 당신,

그 후 우리는
매일같이 쓰린 가슴
무거운 발걸음,
간절한 기도만으로
지내왔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 아팠던
가슴이 또 다시
쓰려오지 않게…
다시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어린 열매들의 가슴으로
흐르지 않게…

당신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뿐한
걸음걸이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해맑은
미소를
기억하겠습니다.



내일은 올 것이라며

조 아 라

(수정초 4학년)

북의 친구들과
얼싸안고 노래하며
웃음의 꽃피우는
그 날을 그려봅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올 것이라며……

두동강 난 한민족의
아픔 잊고
수십 년 기다려온 가족 만나
기쁜 눈물 흘리는
그 날을 그려봅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올 것이라며……

한민족 모두 모여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며
함박 웃음 띠는 그 날이



내일은 올 것이라며,

수십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날도
북녘 땅
내 민족 생각하며
지워집니다.

마음의 휴전선 허물고
땅위의 휴전선 허물고
통일 꽃 피고 지는 통일촌에서

얼마나 기다렸나
부둥켜안고 기뻐하며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다시는 슬퍼하지 말자.
다짐하는
그 날을,



북녘으로 넘어가는
새를 보며
오늘도 그려봅니다.
너무도 기다리는
그 날이,

내일은 꼭 올 것이라며…….



가 작

공 현 아

(선화여중 3학년)

기억하고 있어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시린 바람을

우리는 알고 있어
언젠가는 너를 만날 거란 걸
흰 무궁화는 알고 있지

그 날 생긴 보라빛 상처는
가슴 속 깊이 묻고
해를 기다리는 거야.

지금은 달이 떠있다고 해도
곧 해가 뜨리란 걸 아니까

기다림의 개화

더욱 더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
해를 기다리는 거야



만날 거라고
우리는 꼭 만날 거라고
저 별을 보며 다짐해

수많은 별빛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어
아름답게 피어나라고

안개는 곧 걷힌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
새하얀 만월이

흰 무궁화가
해를 만난다면
해가
흰 무궁화를 만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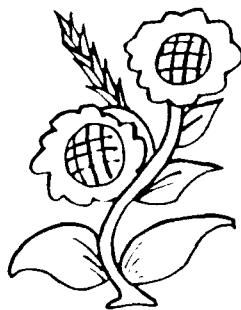
환희에 겨워
새하얀 치마를 휘날리며
기쁨의 춤을 출거야

칠천만의 무궁화가 피어
안개를 지나
일출 속에서 너를 만나는

찬란한 그 날에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거야

빛이 내리는 그 날에



17. 막소망

오 은 미

(동주여상 3학년)

오늘도 난 암울한 회상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하늘을 뒤흔드는 커다란 폭음과
보이는 것은 시꺼먼 연기뿐
그 무엇도 보이질 않는다.

힘없이 총 하나에 의지해 있는
나의 동생을 가슴 조리며 마주 볼 수
밖에 없는 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50여년 후 만난 나의 동생과 난
두 눈이 서로를 향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서로를 보지 못했다.

만남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별의 시간은 다가왔고
그리움은 더욱 커져갔다.

곁에 있지 않아도

언제나 마음은 하나인 나의 동생아!
우리가 훗날 다시 만난다면
서로의 손을 꼭 잡곤
다시는 헤어질 수 없는 곳에서
남은 삶을 살고 싶구나!

다신 이런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들을 나의 후손들에게 만은
물려 주고 싶지 않구나.

언제나 나의 암울한
회상 속에서 잡으려 손 뻗으면
더욱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나의 동생이여!

언젠간 우리도 되돌아 갈 수 있겠지
아무것도 몰랐던 50여년 전의
그 날처럼



인천광역시

- 두고 온 고향
- 희망의 뜨개질
- 제2의 건국을 위하여
- 알까 모를까?
- 동그라미
- 유월의 대지는 알까
- 할머니 눈물의 끝은?
- 책상 위에 금
- 오-필승 코리아!

두고 온 고향

장 현 경

(검단초 4학년)

할머니 할아버지
즐거운 나들이 가는 날

일년에 한번
고향 분 만난다고

그리운 얼굴 떠올리며
얼굴엔 웃음 가득

그리운 얼굴 먼저 보시고
반가와 잡은 두 손

얼굴은 기쁜데
왜 눈물 지으실까?

두고 온 고향 땅
행여 잊을까

개풍군 상도면 눈에 보이듯
이야기 꽂이 끝이 없고

가득한 웃음 끝에
깊어지는 한숨

세월만큼 비어 가는 자리
통일에 대한 아쉬움

통일이 되면
갈 수 있는데……

고향 향한 그리움
할머니 할아버지 한숨으로 남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
할머니 할아버지 소원으로 남고…….



농장의 뜨개질

한 서 희

(부평서여중 2학년)

할머니 방에,
뜨다만 뜨개질 감 하나가 놓여있다.
꿰꿰한
장롱 속 깊숙이 먼지 앓은
뜨개질감.

가족 앓은 우리 할머니 살아 계실 적에
말숙이, 영숙이, 정숙이
같은 모태 같은 핏줄
자매들 이름 되뇌이며 뜨셨던
뜨개질감.

그것을 집어들고 한올씩 뜨는 나의 손이,
잿빛 연민의 감정에 겨워 떨린다.
한 올 한 올 매듭 지을 때마다 나타나는
할머니 얼굴.

머나먼 이북 땅 저편에
자매님들 형제님들 주시려고
할머니 마음처럼 곱디고운 종이에

보고픈 마음 차마 다 적지 못하고
그저 반듯이 접어 눈시울 붉히시며
아버지가 아끼시는 십자매 한 쌈.
다리에 묶어
저 높은 하늘에 훨훨 날려보내시던
우리 할머니.

내가 뜨는 이것은
할머니의 소망이요 바램이다.
친지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할머니의 희망이 담긴 매개체이다.
할머니 손때 위에
내 눈물도 같이 떨어진다.

뜨개질이 완성되어 갈수록,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더욱 거세어지는 것만 같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굳게 연결되었듯이,
나 역시 할머니의 꿈을



굳게 지켜드리고 싶다.

미처 못 이루고 가셨던 할머니의
소망을
내가 이루어 드리리라.

드디어
마지막 매듭이 맺어졌다.

할머니의 웃음 짓는 모습이 보인다.

할머니의 바램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제7회 건국을 위하여

박 미 희

(선화여상고 3학년)

아픔. 시련은 우리에겐 없었다.
막막한 생활도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차가운 철제 휴전선보다
살아 숨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아쉬워했다.

이념 앞에서 핏줄을 떼어두고
그들에게 굽복한 모두의 마음,

세상을 같이 살아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돼버린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싸웠고, 피를 흘리며
한 민족에게 총을 겨눠야 했다.

새 삶을 위한 그들의 반란.



그 앞에 민족을 지키려는 우리.

하지만 모든 것은 끝났다.

누가 승리했고 누가 승복했다는 것은 없었다.

승패 없는 헛된 싸움이 우리와 그들을 황폐히 만들었다.

모든 것은 하나일 때 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나눠질 수 없는 혈육으로 이뤄진 한 나라인 것이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표현도 다르지만

우리가 한 민족이기에 원하는 것은 같으리라고 믿는다.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았던 그릇된 이념은 모두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다.

이제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

하나인 우리를 보여주고,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한다.



알까 모를까?

이 지 혜

(용정초 3학년)

북한 어린이들은
알까 모를까?
우리들이 함께
놀이기구를 같이 타고
싶다는 것을……

북한 어린이들은
알까 모를까?
한 책상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것을……

북한 어린이들은
알까 모를까?
문학 경기장에서
한국팀을 사이좋게
응원하고 싶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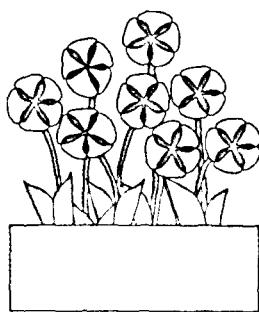
북한 어린이들은
알까 모를까?
따끈따끈한 한솥밥을



사이좋게 나누어 먹고
싶다는 것을……

북한 어린이들은
알까 모를까?
하루 빨리
평화 통일이 되어

힘을 한데 모아
전세계의 우리의 힘을
뽐내고 싶은 것을……



동그라미

박 민 지
(옥련중 2학년)

노인은 오늘도
부서진 조각 맞추어
꽃잎을 끼운다.

붉은잎 모아 맷어진
눈물 한 조각이여—.

노인을 갚아먹는
고통의 기억모아
그리움 한 조각이여—.

때이른 봄 바람에
흩어질까 가슴아파
눈물이 어린다.

땅을 이어
하늘 이어
꽃잎을 끼우리니

당신의 그날이 속히 비치리라.
당신의 그날이 한치앞에 다가오리라.



노인은 오늘도
함께라는 이름속에
동그라미를 그린다.

영원토록 끊을 수 없는
우리의 핏줄처럼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이어진
동그라미를 그린다.

인내의 붉은 눈물
찢겨진 우리의 시간

동그라미 안으로
던져 버리고

그 하나를 바라보며,
그 하나를 기다리며,

노인은 그곳에
그렇게 서 있다.

유월의 대지는 알까

이 재 인

(대간고 1학년)

유월의 하늘은 알까.

그 옛날,
햇살 따스하고
바람 부드럽던 그날.
우리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유월의 대지는 알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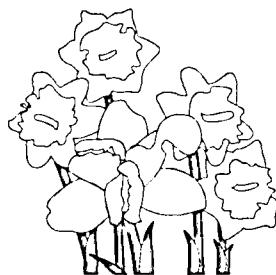
남북의 지도자가 하나되어
열싸안고 그 시간에
억겁을 휘돌아
꽤이고 둑인 사슬
툭,
툭,
끊어지는 소리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

유월의 바람은 알까.



끊어진 철길 너머
무성한 잡초 너머
우리의 통일염원이
단단한 갑질을 뚫고
발아하고 있다는 것을.

너와 나
우리의 심장 두드리는
뜨거운 아우성
백두에서 한라까지,
두만강에서 낙동강까지.



할머니 눈물의 끝은?

김 미 희

(길상초 6학년)

할머니, 할머니
우리 할머니
쪼글 쪼글탱한 할머니의 손은
한 많은
52년 눈물 닦은 손

이북 땅에 있는
부모, 형제 보고파
훌쩍 훌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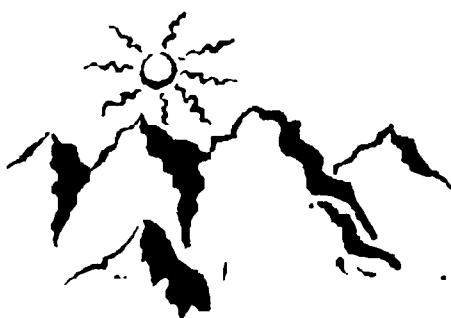
보고풀 때마다
할머니의
쪼글 쪼글탱한 손
눈가에 앉았네.

쪼글 쪼글
주름진 얼굴에
涕어 흐르는 시냇가에
할머니의 쪼글 쪼글탱한 손
슬프게 앉았네.



호랑나비가
가시나무에 앉듯
할머니의 쪼글 쪼글탱한 손
우툴 두툴
눈가에 앉았네.

언제쯤이면,
할머니의
쪼글 쪼글탱한 손
눈가에 앉지 않을까?



책상 위에 금

조 아 라

(선학중 3학년)

짝꿍과 다투 날
책상에 빨간 금 그어놓고
넘어 오지 말라던
짝꿍의 그 말……

난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금을 긁던
짝꿍의 슬픈 얼굴을……

지우개라도 넘어가면
다시 찾을 수 없게 되버렸지만
쉽게 그 금을 지울 수 없던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좀 더 솔직했으면 좋을텐데
우리 둘다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 금을 지우길……
예전처럼 친해질 수 있길……

아직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오~ 필승 코리아!

정 일 용

(송도고 3학년)

2002 한일 월드컵
마냥 흥겨운 것만 같지만,
왠지 모를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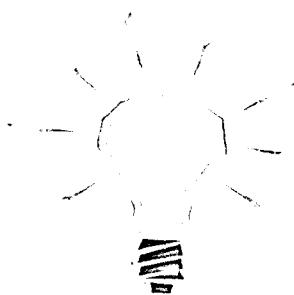
한민족이 모두 모여,
옹원가를 외칠 수 없기에
즐거움에 흥분된
마음 한 구석에
씁쓸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걸까요?

붉은 악마의 단결처럼
남북한도 단결해야 합니다.
이 둘은 하나의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머지 않아 반드시 개최될
남북이 하나가 된,

진정한 KOREA 월드컵.
그 때의 우렁찬 합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 필승 코레아!



대구광역시

- 할아버지의 소원
- 슬픔 그리고 그 이후…
-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 평화 속의 통일
- 하늘 아래 어느 날
- 그 곳에는
- 통일의 계산법
- 이산가족의 슬픔
- 목념의 망각

할아버지의 소원

김 성 종

(대구동평초 3학년)

내 할아버지의 고향은
평안북도 신의주

평생을 바라만 보신
북쪽 하늘

얼마나 그리웠을까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밤이면 눈물 안주심아
술 한잔으로
그리움 달래시며

평양냉면 한 그릇에
고향 맛이라며
고향자랑 잊지 않으시고,

고향 흙 한 줌이라도
쥐어보고 싶어하셨던
내 할아버지

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 구경도
우리가족에게는
다 부질없는 것

평생을
북에 둔 부모형제 걱정에
다 타버린 가슴만 끌어안고
평생을 눈물과 한숨만으로
살다 자신 내 할아버지는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가평 끝자락에
고이고이 묻히셨습니다.



슬픔 그리고 그 이후...

변 미 주

(논공중 2학년)

높은 산 큰 강 모인 책자 속에서 허리에 허리띠 맨 호랑이 지도는
가슴이 파랗게 시릴 정도로 투명한 눈물 흘리고 있었다.
주변이 침식되어 온 몸을 먹어도 꿈쩍 않고 눈물만 흘린 채
그렇게 그렇게 울고 있었다.

호랑이 등줄기 난 얼룩 따라 신나게 달렸어야 할 우리 열정도
그리운 이 보지 못한 채 깊고 아픈 한숨
온 몸 녹슬게 어둠 속으로 몰아넣은 채
그렇게 그렇게 슬퍼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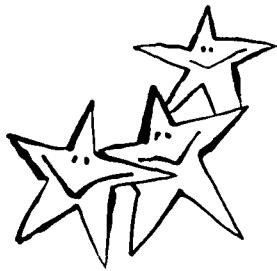
이제나 저제나 다시 볼 수 있을까.
애인 같은 붉은 뺨의 늙은 아내 눈가에 출렁이는 서리움
돌아서야 하기까지 다 잡은 마음은 소리 없이 숨죽여 울고 있었다.
눈물을 가슴에 모으고 또 모아 새파란 명 자욱
가슴에 뜨거움이 내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렇게 그렇게 아파했었다.

하루를 살아도 '보고 싶소 보고 싶소'
어제를 숨죽여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존재에 둑돌리면서



그렇게 그렇게 후회했었다.

젊지만 늙은 아내
눈 가린 채 귀 막은 채 모른 척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공 나의 사랑
그렇게 그렇게 소망했었다.
죽을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었다.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전 경 미

(신명여고 1학년)

거친 눈보라가 슬프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하이얀 눈을 온통 붉은 서러움으로 물들이던 그 날
당신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반세기의 역사 속에 그 날은 묻혀져 가고
서러움에 눈물겹던 저의 머리에 이제 하얀 서리가 앉았습니다.
함께 달래고 어루어주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지만
봄은 아직도 오지 않습니다.

심장을 깨뚫던 총성과
가슴을 짓누르던 공포의 포탄을 가르며
목마른 나를 위해 물을 구하러 가며
기다리라고 꼭 온다고 웃으며 당부하던 당신은
반세기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행여 오려나 떠나지 못하고
반드시 온다던 그 약속을 서럽도록 믿으며
눈보라와 비바람의 세월을 견디며
당신이 떠나가신 그 길만 바라보며
그렇게 당신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내일은 당신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기다
서럽도록 황홀한 기쁨에 눈시울을 적십니다.
세월의 무게만큼 기다림에 지치고
설움이 북받쳐와 가슴을 조이며
보고파 몸부림치던 날들이 떠올라 목이 메입니다.
알아채지 못할까 헤어질 때 입었던 옷을 꺼냈습니다.
함께 찍었던 빛 바랜 사진을 가슴 깊이 묻어둡니다.

서럽도록 기다렸던 봄날이 왔습니다.
기다림과 안타까움에 겹겹이 쌓인 주름너머
예전의 젊은 당신임을 확인합니다.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손을 잡고 체온이나마 느낄 수 있기에
이대로 죽더라도 한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더라도 한이 없습니다.



평화 속의 통일

권 지 혜

(북대구초 6학년)

어른들이 그리셨어요.

뭐니뭐니해도 힘

뭐니뭐니해도 힘이래요.

그 힘으로 공산당을 쳐부순대요.

그리면 통일이 된대요.

통일이 되면

북한에 시는 친구들 만나고

금강산 흙을 밟을 수 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멍든 가슴

아물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지만

공산당을 쳐부수면

또 누군가 죽잖아요.



우린 또 울게 되잖아요.
북한 사는 순이 가슴
멍들게 되잖아요.

할머니 찌든 옷고름
적시게 되잖아요.

우리는
축구도 했잖아요.
우리는
서로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가 되었잖아요.
서로 웃으며
하나가 되었잖아요.

서로 쳐부수고
힘만 기르고…



그러면 통일이 무슨 소용인가요.
북한 사는 순이 얼굴
쳐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편지도 썼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모여 앉아
통일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서로 웃으며 악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싸워야 하나요.

왜
순이 말간 뺨에
눈물이 흐르게 해야 하나요.

하늘 아래 어느 날

김 은 송
(월배중 3학년)

햇살 젖은 하늘
그 하늘 드리운
푸른 구름 밝던
그 날,
눈물 젖은 땅
그 땅을 뒤덮은
붉은 구름 슬프던
그 날.

저 산을 울린 성난 총소리
이 바다를 울린 쓰디쓴 아픔
고향 산천을 적신 붉은 진달래꽃.

하얀 비둘기 둘 높다란
이 하늘을 드리운
푸른 구름 눈부신
오늘.

할아버지 앞에 선
가득 찬 술잔.



엷은 술 위에 짙게 그려지는
성난 총소리
쓰디쓴 아픔
붉은 진달래.

할아버지 앞에 선
외로운 술잔
할아버지 앞에 선
가득 찬 눈물.

할아버지의
구슬피 물든 목소리.

"살아 생전 아버님 술잔에
술 한잔 따르고 싶어요."

엷은 술에 떨구어지는
할아버지의
굵은 물방울

짙은 땅에 떨구어지는
푸른 구름의
애달픈 물방울.

하늘을 드리운
푸른 구름 밝은 어느 날,
사이 좋은 비둘기
하나 된 어느 날.

이 땅에
그리운 너와
외로운 내가
하나 되기를.

세상이 미소지울
그 어느 날에.



그곳에는

주 민 호

(와룡고 2학년)

그곳에는
이미 해가 지고

장대비 내리던
어둡고 낡은 도시의
인적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

그리고 그 높다란 벽 앞에 고여있던
물웅덩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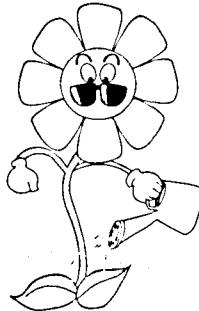
허술하게 갈라진 벽 틈으로
빛과 어둠과
노호성과 금속성과
새어나와 검붉었던, 어떤 허름한 불쾌!

과거는 미래로 이어지고,
때로는 공허한 늦은 밤에
정적을 깨는 한숨짓다.



다만

비어있는 공간을 메우듯
간간이 불어오는
따스한 북녘 바람의 궤적을 눈으로 쫓아.



통일의 계산법

임 준 우

(대구용호초 5학년)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계산

$1+1=2$

하지만 통일의 계산법은

다를 수도 있지요.

$1+1=1$

동그란 물방울

떼구르르 굴러서 합쳐지면은

더욱 커다란 하나되듯이

손해보고 모자라도

한 핏줄이라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면은

북한과 우리도 하나 되어서

더 크고 좋은 나라 되겠지요.

똑똑하고 힘있는 나라 되어서

당당한 세계의 주인이 되고

빛나는 역사를 가꾸겠지요.



이산기족의 술품

김 미 정

(신암여중 2학년)

부모형제 목놓아 부르노니
대답은 없고 메아리만 치네

50년만에 만난 우리엄마
나 기다리다 생긴 주름
50년 만에 만난 우리누나
갖은 고생 덕에 손은 수세미

위원장도 필요 없다!
대통령도 필요 없다!
우리누나 우리엄마
나랑 같이 살게 해 주오

영감, 할멈 불러봐도
대답은 아니 들려 오니
50년 만에 만난 우리영감
쪼글쪼글 아직도 멋지구나

50년 만에 만난 우리할멈
아직도 옥비녀 간직하고 있구나



위원장도 필요 없다!
대통령도 필요 없다!
우리할멈 우리영감
나랑 같이 살게 해 주오.

엄마, 누나, 영감, 할멈
목놓아 불러도 대답 없는
그리운 얼굴이요

우리가 다시 만날
그 날까지 건강하게

금강산에 올라
옛 추억 떠올릴
그 날까지 건강하게
우리함께 제주로 가
유채꽃밭에서 웃을
그 날까지 건강하게

사랑하네 사랑하네
죽어도 못내 잊으리오.



묵념(默念)의 망누(忘却)

장 현 철
(창구고 1학년)

조용히 눈을 감고
어지런 귀를 닫고
벙커 위로 고개를 숙인 채
한(恨)스러운 뒷으로 빨려 들어간다.

빗발치는 탄환 같은 세상 속에서
거칠고 냄비 같은 군중의 물결 위에서
6월의 겨도는 시간 속 더위 밑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선
내 핵(核)을 50여 년 전
어느 팔 떨어진 소년에게
고이 이식시켜 버렸다.

눈 떠지지 않을 눈물
눈 감아지지 않을 투장(鬪場)
탄환은 지긋하신 이방(異邦)분들의
악마에 구원된 창고 속에 저장되고

변한 것 없이 2만여 일은 지나가



그저 작은 휴가 일에 그치는
호랑이 땅의 풍경

묵념이 끝나면 곧
나도 역시 군중 속
한 일원이 되어
머리에 새겨진 이
반짝이는 총칼을
내팽개치곤 잠을 자겠지,

'언제 그런 일 있었니?'
라고 퉁명스럽게 물으며…

광주광역시

- 통일
- 우리 이제 손 잡아봐요
- 그날은 오리라
- 친구야, 사물놀이 하자
- 만들레 씨앗을 바라보았습니다
- 우리의 믿음
- 가만히
- 철마
- 통일의 증표

통일

최희진

(신암초 6학년)

휴전선 사이에 놓고
서로 서로 떨어져 사는
우리 거래

얼마나 튼튼한 거라고
그 조금 가지 못하고
휴전선 넘지 못해
고향 생각에 눈물지울까?

통일만 된다면
부모형제 그리워서
눈물짓는 사람들
없어질 텐데

통일만 되면
너무 가난해서
굶주리는 사람들
없어질 텐데…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은 우리 가족들,
50년 넘게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들……
사람들은 바보다.
이산가족 놔두고
통일하지 않는지……

조금만 노력하면
통일 오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이산가족 없어지는데……

서로 갈라져 있지만
우린 한겨레다.
언젠가 꼭 이루어지리
우리의 평화통일



우리 이제 손 잡아봐요

김 은 정

(광주수피아여중 3학년)

손을 뻗으면
금방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가만히 손 내밀어
잔잔한 물결의 벽을 지나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우리의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길게, 길게 내밀면
잡을 수 있는데
왜 멈춰버리나요?

천사가 내려앉은 듯
보드랍고
사랑을 불태운 듯



따스한 빛을 내뿜는
나의 손으로
그들의 마음까지 열게 한
차가운 손을 꼭 붙잡아
녹여줄 수 만 있다면

내 마음, 대신 열어붙는데도
미소지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손잡아요
마음속의 사랑이
모두에게 달콤한 음료가 되도록
함께 희망의 가락을 지을 수 있도록
힘든 장애물을
도와가며 헤쳐 갈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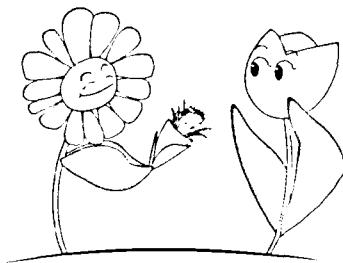
이제
역사 속의 부끄러움은 사라질 거예요.
한 민족의 고통은
파란 하늘처럼 맑게 치유되고



지도 속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가 될 거예요.

자,
한번 조심스레 내밀어 보세요.
느껴지나요?
그들의 마음이……

이제 우리 손 잡아봐요
새로운 태양이 비취는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요.



그 날은 오리라

김 세 정

(살레시오여고 2학년)

통일은 오리라.
산으로, 들로,
하늘로, 땅으로,
우리들의 온 가슴으로 다가오리라.
모두의 가슴에 뭉우리 졌던
통일의 꽃이 또 하나의 꽃이 되어 필
그 날이 오면,

한 맷힌 세월이 흐르고,
한 맷힌 가슴들이 죽어가고,
한 맷힌 눈물이 온 땅을 적시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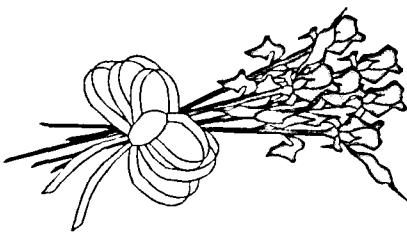
반쪽이었던 하늘,
반쪽이었던 땅 핏줄과 호흡이
하나되어,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리라.
우리의 노래도 하나가 되리라.

통일은 오리라.
혁명이 아닌 민족사랑으로,



투쟁이 아닌 민족의 슬기로,
민족의 가슴으로 뜨겁게 다가오리라.

서로의 눈길로, 서로의 호흡으로,
백두산과 한라산이 마주 손뼉치며
얼싸안아 하나가 될 그 날은 오리라.



친구야, 사물놀이하자

김 윤 진

(운남초 4학년)

친구야,
'동동' 북 울리며
통일 열차 만들어
금수강산 돌아보자꾸나.

친구야,
'叮叮' 징 울리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휴전선에서 숨바꼭질하자꾸나.

친구야,
“덩덕덕 쿵덕” 장구 치며
한마음 장단맞춰
평양에서 강강술래 하자꾸나.

친구야,
'쨍쨍' 팽과리 울리며
손에 손 부여잡고
백두산 천지 구경가자꾸나.



친구야,
우리 모두 합창하여
북, 징, 장구, 팽과리
꽤지나 칭칭 놀아보자꾸나.

친구야,
우리 모두 하나되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희망의 나라로 달려보자꾸나.



민들레 씨앗을 바라보았습니다

신 은 혜

(월곡중 1학년)

천조망 너머로
살포시 날아가는
민들레 씨앗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벼운 몸짓으로
저 푸른 하늘을 향해
그리움의 땅을 향해 날아가는
민들레 씨앗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꿈속으로 그리고, 또 그렸던
저 땅으로 날아가는
민들레 씨앗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이 서글픈 마음
새털 같은 몸에 담아
전해주기 바라며
눈물 그렁한 눈으로
민들레 씨앗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빨리
높디높은
천조망이 걷히고
황금 같은 꽃잎으로
눈부시게 화alive짝 웃는
민들레를 보고
미소지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민들레 씨앗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김 보 영

(대성여고 1학년)

우리는 눈물로
별 같은 눈물로
타인들의 손에 의해
새하얀 종이 위에
피로 된 도장을 찍었었다.

새하얀 옷깃의 펄럭임에
툭 하고 터져 버린 하늘이라서
6월 어느 날
그토록 서럽게도 울었었나 보다.

그리운 백두산을 그리며
그리운 금강산을 그리며
제주보다 가깝던 내 땅을
눈물 흐르듯이 그린다.

아아 동무여
마주잡은 이 손을
다시 놓지 말았으면



그 날 우리 손이
미끄러졌던 이유는
미끈거리는 땀 때문이었던 거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가 아니다.

이제는 철조망 곁에 서서
빈손에 망치와 끌을 들고
나 혼자 하염없이
새처럼 장벽을 쪼더라도
껍데기만 남은 상념을
갈가리 부수고 죽으리라.

민족의 이름으로
우리의 뿌리는
우리 손으로 파헤치고.

잃어버린 민족도
찾아 나서야 할 때다.

가만히

최 사 라

(운남초 6학년)

가만히
귀기울여
들어보세요

가족 잃은
슬픔에 잠겨
구슬피
우는 소리를……

가만히
눈을 떠
둘러보세요

먹을 것 없이
살고 있는
불쌍한
북한 아이들,

칠조망
넘어



저 멀리 있는
북한을 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 모습을……

이제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저 철조망을 넘고
가족 만나러 가면서
입을 귀에 걸고
기쁜 얼굴로
가족을 만나는
그 모습을……

철 마

안 성 현

(광주서석중 3학년)

우리르는
태양이 달라
백색 융단이 찢어졌다.

휴전선 너머
형제의 땅 그리워
눈물 쏟는 가슴 가여워라.

삼천리 금수강산 그리움 안고
달리는 철마야.
고통의 세례 받은 땅이 있거들랑
힘찬 기적 소리
메아리로 알려라.

압록강 넘어간
고구려인의 기상과 합성
백두대간 등줄기 타고
철마야 달려라.



통일의 증표

김 보 수

(광주과학고 1학년)

이따금 난
네 생각을 하지.

우리가슴을 가로지르는
두터운 철조망 하나.

모두들 내일이면,
이제 걷어들인다고 하지.

그러면 우리함께
백두산에 오르자.

두 손을 마주잡고,
한 마리 나비처럼 날아오르자.

오늘은 비둘기 다리에
편지를 매어 보낸다.

이 내 마음을 실어
평화의 노래 부르자.

친구야,
약속대로 우리 하나 되자.

청와대 풍산개 한 쌍이
새끼를 낳듯,
우리도 통일의 증표가 되자.

노란 꽃바람과
분홍빛 머금은
이슬이 만나면
크나큰 무지개를 그려내듯

다시 하나 되는 느낌을
우리들 머리맡에
고까신 한 쌍처럼 놓아두자.

서로 오갈 수 있게.



대전광역시

- 꽃씨 한 개
- 호랑이 동맥이 이어질 그 날
- 채송화
- 통일 그리기
- 통일은 어디쯤
- 통일전망대
- 할머니의 기다림
- 남북한 삼쌍동이
- 통일의 그 날

꽃씨 한 개

박 병 관

(대전도마초 6학년)

흰 구름을 뚫고
휴전선 넘어 북쪽 하늘을 날아
꽃씨 한 개 가지고
우리 대통령은 북녘 땅에 가셨어요.

통일의 꽃씨 한 개
김정일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손으로
꼬옥 쥐어줬어요.

꽃씨 한 개
북녘 땅에 심어져
이산가족들이 만나 얼싸안았고
금강산 문이 열려
통일의 씩눈을 트우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염원과
통일의 꿈을 담은 꽃씨 한 개
북녘 땅을 뚫고 자라
무성한 잎을 달 수 있도록

통일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나는
거름주고 가꾸는
통일 가꿈이가 되겠어요.

월드컵경기에서 우승했을 때보다도
더 큰 감동으로
짝짝 짹짝 짹 박수치며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쳐볼
그 날을 위해.



호랑이 동맥이 이어질 그 날

임 아연

(대전봉우중 3학년)

한 핏줄 생이별에
반세기 웃깃 적신
민족의 눈물은
그리운 강물 되어
유월의 하늘 속으로
세월 따라 흐르네.

그 날의 기억은
시간 속에 바래지나
민족의 붉은 영혼
맘속 깊이 새겨져
맞잡은 두 손 가득히
넘치는 통일 염원.

희뿌연 새벽 안개
햇빛 앞에 걷히듯이
동해바다 가르는
고동소리 울릴 새
다시금 하나로 있는
호랑이의 힘찬 기상.



채송화

남궁현

(동신고 3학년)

어렴풋한 기억엔
고향집 처마 밑에
두어 송이 채송화가 피었었다.

살아 보겠노라 등을 저버린
고향집, 그 길, 그리고…….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나의 어머니

곧 돌아오리라 다짐한 그 길을
비선발로 따라나와
눈물로 배웅하던 나의 어머니

반백의 세월동안
소년은 청년이 되고, 청년은 가장이 되고
이제는 기억 속의 어미보다
백발이 더 성성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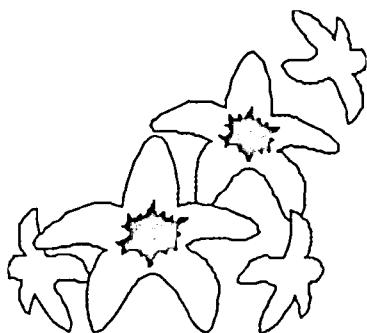
돌아가리라던 약속은 이제
노인의 마음에 씻지 못할 불효가 되어
가로막힌 철조망 마냥



가슴속에서 천천히 녹슬어간다.

고향집 채송화는
올해도 피었을 거인디……
아들을 기다리던 모심(母心)은 이제
철조망 너머의 아득한 풍경이 되었다.

그 길 끝
채송화는 올해도 피었을 거인디…….



통일그리기

이 소 림

(대전복수초 6학년)

도화지에 그립니다.

휴전선도 없고
철조망도 없고
매섭게 쏘아보는
눈빛도 없는
우리나라 지도를

도화지에 그립니다.

경의선 기차를 타고
씽씽 자전거를 타고
금강산에 백두산에
랄랄라 나들이 가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도화지에 그립니다.

파아란 하늘과
노오란 개나리꽃
초록빛 잔디 위에
또르르르 구르는
북녘 뜰의 해맑은 웃음을



도화지에 그립니다.
사랑과 믿음이 가득하여
화해와 용서가 가득하여
말뜻이 달라도
사는 모습이 달라도
마음은 하나
핏줄은 하나
가슴속에 치솟는 통일의 염원을

저는 믿습니다.
도화지에 그린 그림을
가슴으로 벅차게 느낄
온몸으로 뜨겁게 느낄
그 날이 오리란 걸
꼬옥 오리란 걸

통일은 어디쯤

이정은

(가수원중 1학년)

아가,
머리 긁어봐.
장에 가신 엄마 어디쯤 오시나.

그렇지.
동구밖에 오실 테지

아가,
머리 긁어봐
일 나가신 아빠 어디쯤 오시나

그렇지
다리 건너 오실 테지

아가,
머리 긁어봐
통일은 어디쯤 오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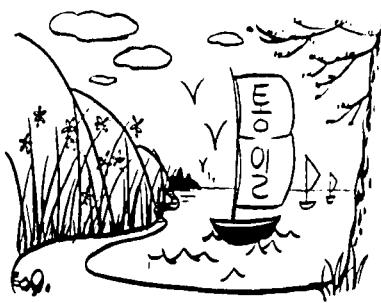
그렇지
눈썹까지 왔을 테지



통일아,
우리 아기 거짓은 아니겠지

보일 듯
잡힐 듯
다가오고 있을 테지

이 순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을 테지



통일전망대

홍동표

(서대전고 3학년)

내가 청한 악수를
네가 받지 못하는 오늘
부처님상 눈망울에도 물기 어린다.

바닷물들은 남북으로 살을 섞으며
정다운 웃음소리
바람결에 묻어나는데

우리의 사랑은 몇 가닥
칠조망에 막혀
힘 없이 안개비로 녹아 내려야만 하는가.

바라보면 산 너머 저 쪽
꽃구름 피어나는 곳
우리의 고향과 닮은 마을인데

남에서 달려간 초록빛 유월은
산마다 푸르게 물들여 어깨동무하고
꾀꼬리 울음 속엔 자유가 반짝이는데



여름은 아직도
휴전선 남쪽에서 발돋움만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은 아직도 한겨울이다.

우리의 발걸음은
왜 늘 여기에서 멈춰서야만 하는가.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붉은 열정도
하늘마저 가를 수 있는 깊은 기상도
여기 와선 연기처럼 스러져야만 하는가.

아들을 그리워하다 눈이 짓무른
할머니의 눈물을 모아 철조망을 끓어보자.
고향의 봄을 부르다가 한줌 흙이 된
한아버지의 입김으로 강 건너 저 쪽 땅에 환한 봄을 오게 하자.

풀빛에 녹아드는 저녁 노을에 싸여 코앞에 누워 있는 내 땅을 두고
오늘도 쓸쓸히 돌아서야만 하는가.

할머니의 기다림

진 민 희

(대전대신초 6학년)

기다리면 오겠지
기다리면 올 거야
할머니 손꼽아 바라시는 날
기다리면 꼭 올 거야

한평생 살면서
가족 없이 살 수 있니?
통일을 기다리는 건
가족을 기다리는 거야

서로 아껴주고 감싸주던
가족의 텅 빈자리
메꿔 줄 수 있는 것은
통일뿐인데

무너져 내리는 아픔에
간절한 기다림에
시커멓게 타들어 간
할머니 가슴 속
풀다만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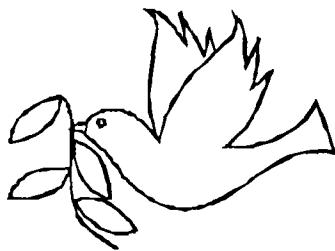


내가 살던 그 곳은
비단결처럼 고운 강물 속
물고기들 살랑거리고
뒷산 골짜기마다
진달래꽃, 개나리꽃, 살구꽃…
울긋불긋 수를 놓았지

그러던 어느 날,
곳곳에서 벗발치는 따발총 소리
엄마 찾는 아이의 애절한 울음소리
자식 찾는 부모의 통곡 소리에
아~ 소중한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지

오가지 못하는 저 산 너머
내 동생 태식이가 사는 곳
엄마, 아빠, 누나가 부르면
아련한 모습 눈앞에 흐린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할머니의 속절없는 눈물이
장대비에 깨끗이 씻겨나가고
밝은 해에 말끔히 말려지는 날
기다리면 오겠지
기다리면 꼭 올 거야.



남북한 삼성동이

신 영 주

(대전용운중 2학년)

또 하나의 내가 나를 봅니다.
손도 두 개 달렸나 보고,
다리도 두 개가 달렸나 봅니다.
차라리
그와 내가 다르다면 좋을 텐데.
참 모르겠습니다.
그와 나는 다른데,
사람들은 우리를 너라 칭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와 나는 둘입니다.
차라리 그가 없다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그에게
구속되어 있는 듯한 기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도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의 눈이 나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너는 나인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 역시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 역시 정답을 모르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어른들의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냐고.
어른들은
우리 둘 중 한 명만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서로 미운 감정만이 들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로써 완전하니까요.
그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타협했다면,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을 것을.

왜 그 때는 깨닫지 못했을까요.
어른들은 왜
두 명이 살 수 있는 방법보다는
한 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려 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삼쌍둥이 하지만
우리는 우리로써 완전합니다.
우리는 한 핏줄 한사람인 형제니까요.

통일의 그 날

신 옥 경

(대전신일여고 3학년)

하늘과 맞닿은 북녘
푸른 구름에 젖은 저편엔
시들지 않은 우리의 그리움이 있다.

정신없이 휘몰아간 긴 긴 세월
어찌 잊을 수 있으랴
하나되어 흐르는 얼을

뼈저린 아픔을 뒤로하고
분노의 설움을 묻어 두고
웃음의 꽃을 피우려 한다.

산등성이에 걸린 붉은 미소의 바램은
뜨거운 제 무늬를 새겨놓고
오늘도 벼티어 내는구나.

찬란한 광명
북녘 끝에서 요동치는 그 날
환희의 염원이 그리움 뒤에 터지리라.



울산광역시

- 통일이 된다면
- 휴전선을 넘어
- 새
- 지우개로 휴전선을 지울까?
- 바느질
- 시간의 흐름
- 우리는 짹꿍
- 형제에게
- 그는 역류한다

통일이 된다면

박지은

(옥산초 6학년)

통일이 된다면
북한 친구를 만나
너랑 나랑 손잡고 한라산도 오르고
어깨동무하고 백록담에도 가보고

통일이 된다면
금강산에 올라서서
일만 이천봉을 다 헤아려보리라

통일이 된다면
50년 떨어져 살던
이산시인 정귀업 할머니는
다시는 할아버지랑 이별하는 일없이
하늘과 땅을 합친 만큼
꼭 그만큼 행복해 하시겠지…….

통일이 된다면
기차를 타고
울산에서 평양까지 신나게 달려봐야지
호랑이 꼬리에서 머리까지



얼마나 신날까?
기차 안에는
북한아이, 남한아이 친구 되어 시끌벅적
얼마나 신명날까?



휴전선을 넘어

손 정 아

(농소중 1학년)

휴전선을 넘어
우리집 마당에,
아롱다통 진달래가
활짝 꽂다고.

휴전선을 넘어
우리집 처마에,
날아드는 제비가
기특하다고.

휴전선을 넘어
우리집 지붕에,
하늘하늘 구름이
머물었다고.

휴전선을 넘어
우리집 마루에,
알콩달콩 울가족
그리웁다고.

재비야,
전해주려무나
진달래 잎 편지
눈물의 편지
전해주지 않으련?

구름아,
모시어오너라
우리가족 모두
등실 홍겹게
모시어 오지 않으련?

휴전선을 넘어
우리집 안방에,
못다한 이야기
끝이 없다고.



송희원

(성광여고 1학년)

구름이 몰고
하늘이 울어, 두 마리 들짐승 아래
하얀 새
날개를 잃었다.

꿈처럼 긴 세월
산자락에 떠돌던
숨결은 흐려져 가고

한이 깊어 눈은
어찌 감나

풀잎같은 눈물
그 속에
핑글
자리잡은 세상이라면
날 수 있을까
그리고 꽃 냄새
맡을 수 있을까

상처는 아직 깊다

그러나 구름 걷히고
즐거운 노래
가득할 어느 날

새는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리
녹슨 철조망 너머
숙명처럼 그 곳으로
그 곳으로



지우개로 휴전선을 지울까?

김 나 경

(두동초 5학년)

지도를 그리다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선을 하나 그긋고는,
지울까? 말까?

지우개로 쑥싹쓱싹
예쁘게 그린 지도가 망쳐진다.
원래 이게 아닌데...
선을 그냥 놔둘까?

연필로 그은 선을 그대로 놔두면
남과 북은 갈라진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쑥싹쓱싹 지울까?

이 선을 지우면
헤어진 이산가족
다시 만나게 되는데...

헤어졌던 가족과

다시 만난다면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일까?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기분일까?

그림이 망쳐진대도
지도에 있는 선을
지우개로 쓱싹쓱싹

선이 조금씩 지워진다.
내 마음이 떠오른다.
덩실덩실 춤을 춘다.



바느질

하 재 희

(현대중 3학년)

평화라는 바늘을 들어
화합의 실을 꿰어

南이 새겨진 천과
北이라는 이름의 천을 잇는다.

바느질 한 땀에
철조망이 무너지고

바느질 한 땀에
지뢰밭이 사라지고

바느질 한 땀에
수십만 이산 가족의 피눈물이 하늘로 치솟는…….

통일
그 어느 비단보다도 부드러운 수건이 되어
민족의 상처를 쓰다듬는 그 이름.

다시
바늘을 들어
천을 잇는다.

평화라는 바늘을 들어
화합의 실을 꿰고

南이 새겨진 천과
北이라는 이름의 천을 잇는다.



시간의 흐름

심 현희

(울산미래정보고 1학년)

생명들이 채 눈뜨기 전
우리가 너와 내가 되어버린
그 시간이 존재했노라.

하나가 둘이 되어
분노와 슬픔이 한 곳에 모여든
그 시간이 있었노라.

빛과 어둠의 공존 아래
아픔은 눈물로써 상징되는
그 시간이 흘렀노라.

지금 강물의 유구한 흐름속에
상처로 얼룩진 영혼을 내맡긴 채
흘러가고 있는 우리...

서로의 체온으로 온화함과 따스함을
나눠 가져야할 그 시간이 다가오노라.

우리는 짹꿍

정 호 경

(웅촌초 5학년)

남과 북은 것가락이다.
하나만 있으면
아무 쓸모도 없다.

우리는 손이다.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서
덜덜덜 손을 떤다.

우리는 친구다.
우리 일심동체
마음이 남북통일을
조심조심 쌓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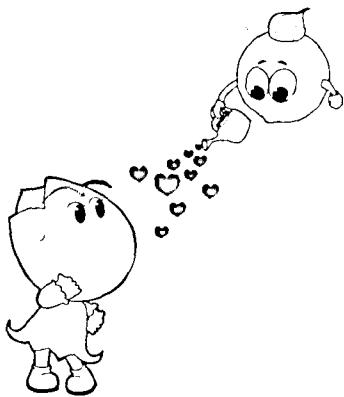
우리는 연필과 지우개다.
서로가 필요할 때 달려와
쓱싹쓱싹 도와준다.

우리는 짹꿍이다.
서로 모든 걸
빌려주고 나누는



내 짹꿍이다.

우리는 꿈을 꾼다.
남과 북이 손을
마주잡는 그 날을...



2021.11.04.17.11

배 일 송
(대중송 1학년)

휴전선 사이 두고
너와 나 헤어진지 50년.
나 네가 그리워.

기쁜 일 있어도
웃음 없고

통곡으로도
너 나에게 없어.

너 있는 북녘땅
어렵다는 소릴 들으면
너 어떨까
조마조마도 했고

너 콧물 흘린
사진보고
내 가슴팍 아프도록
끌어안아도 봤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야
아직도 그 때 울부짖으며
나를 부르던
그 때가 생각나는구나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서 살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우리를 갈라놓은 저 철조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고
너와 얼굴 비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 때까지 꼭 기다리렴
잘 있어라.

그는 예류 있다

이 미 영

(효정고 3학년)

태초에 하늘이 우릴 맷어 줄 적에
손가락 마디마다 곱게 엮어 준 오색실이
녹내 비릿한 철망 꼭대기 위
차마 닿지 못할 그리움으로 얹히여
오늘을 달리어 왔다

이제 그 날의 비명과 혈흔도
세월의 늙속으로 스미어만 가는데
그는 마지막 혼을 불태우며
귀향을 준비한다

생애 단 한번 산란을 꿈꾸며
화살촉같은 강물을 거슬러
죽음을 오르는 은빛 연어처럼

내몰린 사지의 문턱에서
치닫는 애수의 나락에서
벼들파리 불며 뛰놀던 옛 성터로
서럽게 달음질 친다



저만치 떠난 벗의 애환을 담아
그래도 남의 벗의 삶을 담아
무너져야 할 저 가시밭 너머
시린 반세기의 틈사이로
힘차게, 힘차게 역류한다



경기도

- 그리움
- 하나
- 꿈꾸는 휴전선
- 너는 해님, 나는 달님
- 나 만들레 씨가 되어
- 보금자리
- 따로따로 50년, 함께했던 2박3일
- 할미새
- 사람을 그리며

그리움

임 슬 기

(성남구미초 6학년)

"언니"

외마디 외침소리와 함께
서로 부둥켜 안는 자매

꿈인가 생시인가?
서로 더듬더듬 만져보기도 하고
등을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할말을 잊은
주름 투성인 얼굴에는
쉴새없이 흐르는 눈물로 범벅.
서로 웃기도하고, 춤추기도 하고

시간은 짧은데,
왜이리 할말은 많은지
늘어놓아도, 늘어놓아도
끝이 없는 이야기 보따리.

이산가족 상봉의 마지막날,
서글픈 얼굴로 아쉬운 마음으로



바짝바짝 타들어 가는 입술로
식사시간도 잊은 채…
이것이 마지막이려니…

자꾸만 훌러가는 시간은
왜 이리도 빠른지
얼굴 한번 더 보고, 손 한 번 꼬옥 꼭
더 잡아보고 싶고,

그냥 영원히 영원히
손 놓아주지 않고,
그냥 영원히 영원히
이 대로만 있으면 좋으련만…

남과 북을 가로막는
3.8선 철조망을 넘어
내 핏줄 내 부모, 내 형제
이렇게 천년만년
오순도순 살수만 있다면…



하나

이연아

(0)천장호원중 3학년)

저린 소금강물 가슴에 애안아
감추어둔 철조망이
시린 새벽이슬에
다시 눈가로 젖어든다.

즐비하게 늘어선 초록 기운들은
50년전 그 날을 아는지
여름이 온것만을
쓸쓸히 알리고…

구름을 자꾸만 놓아 가는
손 끝에 맷힌 그리움이 쌓여
내를 이루고,
아픔은 또 다시
그 속에 갇힌 하늘이 된다…

뜨고 지는 해도,
피고 지는 얼굴들도 같은데,
걸어서도 갈 북녘의 하늘은
왜 그리 높은지…



맞닿아도 가지 못할 서러운 마음은
기슴 저리게 저 땅을
부르고 있는데…

끊지도 못하는 하늘선엔
그래도 철새가 난다.



꿈꾸는 휴전선

이 수 선

(안산성안고 3학년)

나는 휴전선이라오.

심장을 가르는 총소리와 피비린내
그리고 한 맷힌 눈물 핥으며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오.

숨 죽여 가슴 졸여 살아온
내 나이 벌써 오십이 홀쩍 넘었구려마는
이글거리는 태양보다 잔인하고
섣달의 눈보라보다도 매섭게
마냥 설움 받는 외톨이라오.

산당화빛 미소 북녘을 물들이고
목련꽃 내음 산하를 맴도는데
이 거룩한 풍경을
나만이,
그저 나 혼자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이
문득 원통하기만 하구려.



등불이 심지를 내려
나뭇가지 사이 바람의 노래를 펼 때
나는 사무치는 그리움 토해내며
철없어
더욱 아름다운 비상을 꿈꾼다오.

희망의 새 빛 비치고
내가 이 땅에서 걸히는 그 날
한라에서 백두까지 메아리 칠 것이오.
월계수 푸른 한 잎의 환호가.

나는 아직도
꿈꾸는 휴전선이라오.



너는 해님, 나는 달님

전 상 미

(고양현산초 5학년)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정다운 오누이

5000년의 낮과 밤을
비, 바람, 폭풍우를 견디고
두 손 마주 잡으며
오래 오래 함께 살자
약속했었지

어느 비바람 치던 날 밤
무서운 호랑이 두 마리
우리 오누이 잡으려 오고 말았어

멋진 오빠와 예쁜 누이
잡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두 손 놓쳐 버렸네
그리고 52년…….

우리는 오누이
어느새 남이 되려 하네

우리는 오누이
결코 남이 될 수 없네

싸움 한번 했다고
부모님이 달라지나

싸움 한번 했다고
한 핏줄이 아닌가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나는
우리는 정다운 오누이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는
우리는 한마음 오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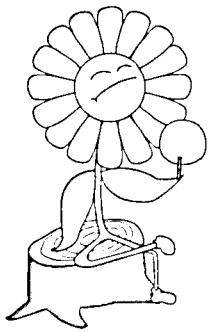
다시 만나는 날
너는 해님 되고 나는 달님 되네

낮에는 금수강산에
영양 주는 든든한 해님



밤에는 어둠 속
빛내주는 고운 달님

해님이 제왕 되는 멋진 꿈
달님 속에 옥토끼 키우는 예쁜 꿈
우리 해님 되고 달님 되는 날
소리쳐 부르고 싶네



나 만들게 써가 되어

이 희성

(고양무원중 1학년)

태풍보다 지독한 전쟁터에서

나는

그를 혼자 두고

남쪽으로 날아 왔네

거친 바람 타고

보고픈 마음 반 백년

간절한 기도 한 평생

간직하며 살았네

낯선 땅 위에

꾹꾹 내렸네

희망의 뿌리를

왜 이렇게도

세월은 더디 가는지...

가슴이 타고 타서

검정 숯이 되었네

이제야 피었네,



방방곡곡 민들레 씨가
민들레꽃으로

부러운 마음 결심했네.
나 민들레 씨 되어
고향에 갈 준비를

나도
저 민들레 씨처럼
꽃을 피우기 위해

먼 산에서 불어오는
솔솔 훈훈한 바람 타고
저 휴전선 너머에 있는
나의 님
나의 흙을 찾아

보금자리

김 도 훈

(안성고 3학년)

하늘아래 금을 그어 보금자리치고
바다 없는 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때를 쓰는
애꿎은 비는 종일 뿌리어도 그칠줄 모르는데

이 작은 산과 들에 오시는 주인들이라
고요히 깃발을 올리는 태극의 반쪽들아
따뜻한 바람을 맞더니 우리의 어버이를 잊었더냐

너는 촛불이면 나는 심지일진데
너는 최후의 밤까지 새우려느냐
잠깐이나마 우리 태양 가득한 뜰에 머물자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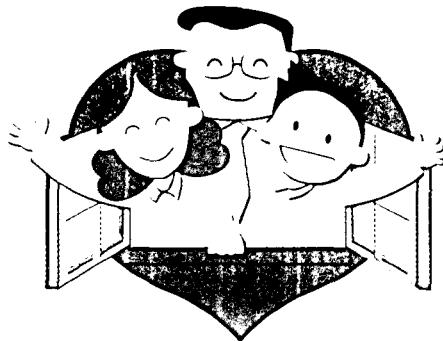
때때로 지그시 눈을 감으면
태풍은 아직도 용솟음치며 머물러 잊건만
장(長)험한(險恨) 역사를 끝내고 세기의 광명을 밝히자

설움에 여원 찬란한 봄이 밝아 다가올 진데
새 봄날 맞으며 한번 기다려 보자꾸나
정녕 수줍고 어리석게 생각되거든



심장을 태워 핏줄 속 웃는 모습 한번 보고
잔잔한 고향바다 두 번 보고
의지에 불타오르는 너의 모습 세 번 보아라

거기에 석양이 지고 아침이 오거든
내 보금자리에 마주 손잡고 앉아서
옛 동무 한 바다에서처럼 목놓아 불러보자꾸나



파로 파로 50년, 함께했던 그날 30년

김 성 연

(광주광명초 4학년)

1살의 아기가
50세의 아버지로

30살의 청년이
80살의 노인으로

40년 전의 아버지는
표정 없는 얼굴로

50세의 어머니는
이 세상 안 계시네

자꾸만 자꾸만
쓰러져옵니다.

자꾸만 자꾸만
큰절만 올립니다.

이제는
웃더라도



꽃처럼 활짝 웃도록

이제는
아주 오래
하얀 앞니를 드러내고 웃도록

이제는
서로 붙잡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기를
함께 했던 2박 3일
함께 하는 새 천년 .

8월 12일

이 승 빙

(성남분당중 3학년)

북녘 땅에 두고 온
남편을 그리며,
전쟁통에 잃어버린
자식을 그리며,

그리움에 죄책감에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할미새는 등이 굽어
슬피 울고 있네.

세월이 가루 되어
약이 된다 하여도
가끔씩 밀려오는
외로움에 그리움에
소주 한 두 잔으로
달래보려 하지만
그리하여 떠오르는 사연은
더욱 가슴을 저리게 하고
마음 속 한은
가슴에 파묻혀 병을 낳았네.



할미새는 끝내
하늘을 날지 못했네.
마지막까지 자식과 남편을
가슴에 묻고 울었네.
다음 생에 부디 함께 하자며
서글픈 눈을 감았네.



사람을 그리며

장 민 진

(성남분당고 2학년)

영산(靈山) 아래 물줄기는
오십 년 세월과 함께 흐르고
사람에의 목마른 그리움은
흐르다, 흐르다 끝내 넘치다.

계절은 쉼 없이 오가고
강산은 덧없이 변하는데
내 나이만큼의 아픔은 언제나 그 자리에

어둠이여,
어서 나를 짓밟고 가라.
밤새 괴로운 내가 고개 들었을 때
우리 다시 만날 길을 밝혀줄 태양이
아무렇지도 않게 솟아나리라.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한 산하(山河)를 베고 잔 까닭이다.
반 백년의 상처가 무색함은
하나의 맥(脈), 그 정기(精氣)를 마셔온 까닭이다.



민족의 영산,
한반도의 젖줄.

그 속에서 반만년을 한 길로 다닌 사람.
눈감아도 알 수 있는 그리운 동기(同氣).

한낱 차가운 쇠붙이로
이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피눈물 흘린 오십 년을
변명할 수 있을까?

내 조국, 내 산하에
또 한 번 붉은 꽃이 피기 전에
그리운 사람이여!
내 반드시 너를 만나리라.

강 원 도

- 도화지 속의 친구
- 통일은 달빛이 되어
- 남북이 한 마리 호랑이로
- 통일의 바람
- 나뭇잎
- 그 날이 오면...
- 그리운 그 날!
- 통일의 그 날
- 눈물의 새월

도화 7.1 속의 친구

진 현 경

(북삼초 5학년)

열두색 크레파스로
북한 친구 그리다가
새록새록 잠이 들었네.

하얀 얼굴
까만 눈동자
우리말을 할 줄 아는 그 친구는
나와 꼭 닮았어요.

그러나
촉촉이 젖어있는 두 눈동자
떨리는 목소리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대요.

친구야!
우리 두 손 모아
어서어서 통일이 오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통일되면



너와 함께 손을 맞잡고
책상에 나란히 앉아서

공부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실컷 먹고 놀자꾸나.

그리고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알록달록

고운 무지개
다리 놓고 아름다운 강산
구경하자꾸나.

잠을 깨어보니
어느새,
도화지 안의 친구 얼굴
기뻐서 "방실" 웃어주네요.



통이 달빛이 되어

엄 수 경

(신천중 2학년)

깜깜하고 어두운 밤
환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달빛처럼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
따뜻한 달빛을 나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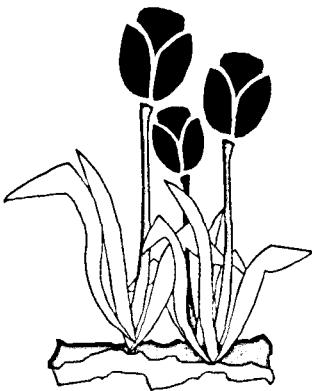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에
조금이나마 환한 빛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어둡고 힘한 세상에
한줄기 빛처럼 희망이 되어
이제는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가 되어
커다랗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통일이
한줄기 달빛이 되어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남북이 한마리 호랑이로

권 중 빈

(속조고 2학년)

그래! 지금이다

내리 쏟아지고 밀려들어오는 해(日)와 해(海)의 기상을
가슴으로 받으며,
흑백논리의 굳은 탈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호랑이가 되자

지구의 축제 월드컵까지 열었으며,
그 무언가도 할 수 있는 우리이기에
앞으로 어디로든 끝없이 나아갈 수 있는 발힘을 지닌
너와 나이기에
허리가 끊어져 누웠는 호랑이의 척추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지나간 전쟁의 상흔이야
눈물 자국처럼 말끔히 씻어버리고
하나의 푸르른 꼭지점으로 방향을 잡아
그래,
이젠 망설임 없이 가는 거다



웅크렸던 호랑이의 기상을 일으켜 세웠으니
끊어진 철도를 다시 하나로 이어
반세기 지나도록 깊은 겨울잠 자는
철마까지 깨워
한라에서 백두,
백두 그 너머 너머로
반도의 누리를 힘차게 함께 달리어 보자꾸나.



통일의 바람

이 아 름

(구승초 5학년)

나는 한 점
바람이 되는 꿈을
꾸어 봅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백두산 숲 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임진강을 따라 내려와도 보고

한라산 감귤처럼
주렁주렁 사랑의 빛을
가슴속에 품고
가시 철조망 상관없이
평양에도 가봅니다.

우리도 하루 빨리
평화통일 하여
바람처럼
서울, 평양 어디든지
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 속에 나타난
통일의 바람처럼 말입니다.



나뭇잎

이 은 애

(춘천여중 3학년)

50여년의 길고 긴 세월에도
강물은 여전히 흐른다

민족 가슴 한 구석에
비수로 와서 꽂힌 철조망도
강물을 막을 수는 없나보다

푸르른 여러 개 중
가장 믿음직한 한 개를 주워들어
편지를 쓴다

가깝고도 먼
피를 나눈 나의 형제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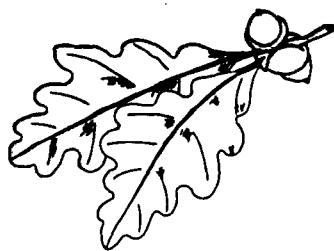
눈물나도록 보고싶구나
가슴 시리게도 그립구나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내 마음 전해줄 이 나뭇잎이
강물을 따라 너에게 닿으려면



길고도 힘겨운 고난의 날들이 있겠지만은

내 마음 전해 받은 너의 정성스런 답장은
네가 직접 내 손에 쥐어주길 빌며
이 나뭇잎을 강물에 띄운다



그 날이 오면...

류 정 은

(횡성여고 1학년)

몸 풀고 흐르는 강물 따라
역사도 흐른다
반세기를 잘라먹은 세월은
실향민의 아픔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양 한 곳으로
흐른다.

강물을 따라 흐르는 물은
바다에서 다시 만나건만
북녘하늘 바라보며
오매불망 만나기를
염원하는 소리들은
어찌하여 메아리로
돌아올 뿐인고

임진강 너머로
눈물짓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보를 이루고
움푹 파인 주름 속의 세월만큼
가슴 애였던 수많은 날들



누구의 욕심이었나?
누구의 욕망이었나?
형제의 가슴에 향한
총부리를 거두고
무더위 속에 늘어져 서 있던
녹슨 철마는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달리는 철마를 타고
금강산 일만이천봉에 올라
조국의 통일을 부르짖을 날이 오리니

그 날이 오면
두만강에 배 띄워
강이 되어 서로 만남을 감사하며
은혜로운 이 땅을 영원히
노래하리라.



그리운 그 날!

김 나 희

(운양초 6학년)

남한 북한
모두가 하나되는 날!
그립습니다.

하얀 비둘기
저 높은 하늘을 날며
우리를 축복해 주는 그 날!
그립습니다.

손에 손잡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모두가 눈물 흘리는 그 날!
그립습니다.

우리가 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철조망을 치우는 그 날!
그립습니다.

"아들아!"
"어머니"
서로 떨어져 있던
이산가족들이 헤어지지 않는 그 날!
그립습니다.

그리운 그 날!
우리가 하나되어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날!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그 날!
눈물을 흘리며
열싸안고 기뻐하는 그 날!
우리가 기다리던
통일이 오는 그 날!
우리 모두가 그 날을 그리워합니다.



통일의 그 날

정 예 진

(임계중 1학년)

하늘과 맞닿은 북녘.
푸른 구름에 젖은 저편엔
시들지 않은 우리의 그리움이 있다.

세월이 많이 흐른들
하나되어 흐르는 서러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눈물의 고운 열매되어
뜨겁게 맞잡은 손과
눈부신 금강을 향하는
가슴 벅찬 우리의 마음

이제는
더 이상 꿈이 아니다.

한스런 세월의 눈물과
평생을 묻어둔 빛 바랜 그리움
희망의 품안에
고이 맡겨 두었다가



언제 어디서나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듬뿍 나누기를
늘
꿈꾸어 왔는데…

녹슨 철조망으로 인해
가슴 조이며
통일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한이
애처로운 나날

이제는
어둠의 끝자락과
평화의 시작이 교차하는
영원의 그리움 뒤에 떠오를

그 날의 태양을
조용히 떠올려 본다.



눈물의 세월

이 윤 희

(정선고 1학년)

친구야!!!
넌...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흘린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있니?

50년이라는 세월 속에
남몰래 흘려온 눈물들
그것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가족들...
그들이 보고 싶어서.....

그들을 그리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물을
우리의 손으로
씻어드리자.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슴을
통일이란 이름으로



지워드리자.

바래고 바랜
사진 한 장에 의지해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사진이 아닌
나와 닮았지만 다른
헤어진 가족을 선물해 드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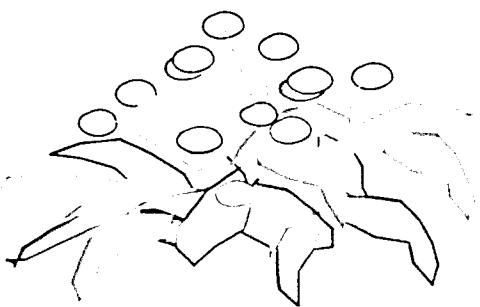
기뻐하실 그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울 우리들의 모습
생각만으로도
미소가 떠오른다.

미국처럼 먼 곳도 아닌데
우리가 이토록
서로를 그리워 하지만



만날 수 없는 현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우리가 손을 잡고
만날 수 있는 그 날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우리 민족의 웃음소리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



충정북도

- 사회시간
- 할머니의 꽃밭
- 편지
- 손잡고 놀고 싶어요
- 통일 꽃
- 통일의 길
- 이산가족 상봉
- 휴전선
- 할머니는

나는 너

심 선 기

(오선초 6학년)

친구와 사회 공부하다가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다.

호랑이를 닮았다는
우리나라

호랑이의 등뼈를 타고
쭈욱 올라가 금강산도 그리고
백두산 천지도 그렸다.

하리를 가로질러
휴전선을 그렸다.

힘 앓고
아파하는 호랑이

미안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에
지우개로 힘껏 지웠다.

할머니의 꽃밭

김지은

(충주북여중 2학년)

해마다
아카시아꽃 피고 지면
짙어진 녹음 속에
가뭇없이 떠나 간

큰아들 생각으로
할머님의 컷전엔
아직도 포성이 멎지 않으셨나 봐.

흐릿한 망막 속엔
베잠방이 까까머리
여태껏 눈에 밟혀
초하루 보름이면
정한수 바쳐놓고 비는 마음
"천지신명이시여!
어서어서 통일되게 해주소서"

미움과 시기로 열룩진
통한의 우리 역사
반세기 넘도록 반쪽으로 나뉘어져



언제나 오가려나
정겨운 산과 들

차디찬 이념 논쟁
마음 열어 보듬고 손잡으면
모두가 내 부모, 내 형제
한 핏줄의 따스함이
가슴깊이 전해오련만…

오! 이젠
눈물의 저 장벽을
와락 무너뜨리세
통일은 기다림이 아닌 것
화해와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

평화통일 그 날까지
이해와 포용, 사랑과 양보로
세찬 파도 넘어
갈등의 벽도 히물어 보세



올해도
할머니의 꽃밭에는
통일에 목마른 산나리꽃이
곱게 곱게도 피어나겠지.



편 7.1

이정수

(청주고 2학년)

임진강에 종이배를 띄웁니다.
어릴 때 읊먹이며 보냈던 누이
그 누이의 얼굴에서
검댕 묻은 볼 위에 흘렀던
한줄기의 한
그 한이 편지에 떨어져
얼룩을 남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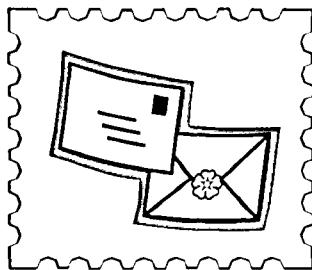
아련한 누이의 얼굴은
바랜 흑백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누이의 얼굴에 나는 향기는
길가의 아담한 들꽃을 닮았습니다.
외로워 못 견디오면 누이사진 불들고
소주 한 모금으로 눈물을 도려냅니다.

갈대 숲을 헤치며
강가를 거닐며
그리움이 노을 되어
강물을 반짝이면
나 방랑하는 기러기가 되어



누이와 어릴 적 등지로 돌아갑니다.

임진강아
북쪽으로 훌러 훌러가
불쌍한 내 누이한테
이 편지를 전해주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내가 철책 밟고 달려가서
누이 가슴에 얼굴 묻고 평평 울도록



손잡고 놀고 싶어요

허 자 연

(어상천초 4학년)

일본 영사관 철대문에
몸을 찰싹 붙인채
끌려나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네 모습

두 갈래
머리 묶은
북한을 탈출한
꼬마 친구야!

마른 얼굴
까만 눈동자
겁에 질린 그 모습
잊혀지지 않아요

남과 북이 하나되는
그 날이 오면
다시는
이런 비극은 없을 거야



그 날이 오면
그 소녀와
정답게
손잡고 놀고 싶어요.



통일꽃

이 수 영

(음성여중 3학년)

남한의 산맥은
아직도
북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강물은
아직도
남한에 흘러들고 있습니다.

남한의 바람은
아직도
북한까지 불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구름이 걷히고
맑고 밝은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통일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통일의 꽃은
결코 약한 꽃이 아니라
굳고 강한 꽃입니다.

꽁꽁 언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의 싹이 돋아나
통일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서로간의
불신과 반목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희망의 씨를 키웁시다.

눈물이 아닌 웃음이
슬픔이 아닌 기쁨이
들이 아닌 하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통일에 대한 열망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통일의 꽃으로
새롭게 피어나야 한다는 것을



통일의 길

홍 수희

(충주여상고 2학년)

남파 북을 가르는
멀고 긴 휴전선을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다

아픈 눈물 받아먹으며
찬바람 견딘
기—인 잡초의 50년 세월은
아직도
끝을 보지 못했다.

아무도 손닿지 못하는 곳에서
꺽이지 못할 풀로 자라버린
잡초의 아픔은
더욱 짙어가지만
거센 눈물 바람 속에서도
결코 시들지 않는
숲을 이루어 간다.

어느 날부턴가
그 숲에도



따스한 햇살이 내리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램을 실은
메아리가 길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작은 햇살 끝없이 드리워진 날
숲을 밟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끝없는 손길로
남북의 길이 열려
잡초의 아픔을 보듬을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박 슬 기

(동인초 5학년)

"아이구, 내 아들아!
우리 순둥이가 왜 이렇게 늙었누?"

아들을 보며
우시는
할머니의 굵은 주름살

"어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어머니 품속으로 파고드는
아들의 거친 손

남과 북이 갈라져
만나지 못했던
너무도 긴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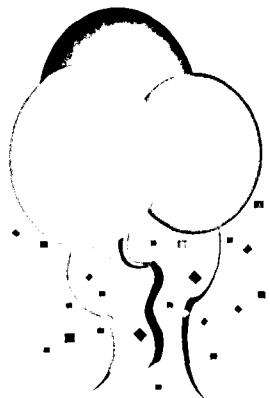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놓을 줄 모르는 손과 손

그러나
눈물과 아쉬움으로



헤어지고 돌아서는 아픈 마음

통일이 되자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통일이 되자.



휴전선

정 다 운

(제천여중 1학년)

없다 없다

높은 산도

큰 강물도

있다 있다

저기 저 한가운데

못된 선하나

잘라버렸다

저기 저 한가운데

나쁜 선 하나가

잔인하게도

끔찍하게도

잘라버렸다

여기 이곳의

한 민족을

두 조각 냈다



파아란 하늘의
구름들은
잘도 모여 있는데

밤하늘의 별들은
온망졸망
변한게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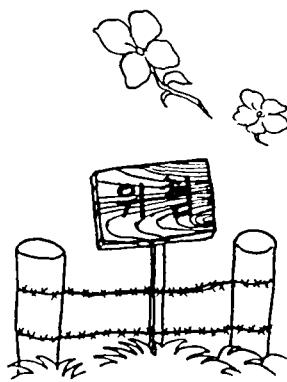
붙이고 싶다
붙여야 한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슬프디 슬픈
그리움의 눈물로
지우고 싶다
지워야 한다

한민족
이별의 아픈
마음으로

가보고 싶다
가야만 한다

파란 파랑새되어
하얀 민들레씨 되어
하늘하늘 구름되어



할머니는

김 송 이

(청주여고 2학년)

커다란 파도가 끊어올라
할머니의 눈가에 내려앉으면
오늘도 마루모퉁이에서
구부러진 손을 꼬옥 쥐어보신다

와 아—
흰 강아지 떼의 함성이
"어머니"하고 눈앞에 뵈다말고
뒷걸음질로 저만치 달아나 버려
땀이 손을, 흠뻑 적셔놓았다

하늘이 먹물을 삼켜
할머니의 입가에 벨어내면
오늘도 서랍구석 깊숙히
주름진 사진을 한껏 새겨놓으신다

쉬이—
구름 떼의 지지귐이
아들의 가슴에 탄알이 될까
가시덩굴 속 작은 새의 몸부림에



핏빛이 사진을 물들였다

입도 눈도 잊으신 할머니는
한평생 뒤꿈치를 드시곤
담장 너머 주인 잊은 발자국소리를
꼼짝없이 듣고 계신다



충청남도

- 48과 53
- 우리 할머니
- 저 태백산 기슭에서 먼동이 밟아온다
- 을 엄마의 뒷이 되기 전에
- 금강산 아리랑
- 가슴에 꽃 피리라
- 현장학습 가는 날
- 우리 어머니
- 무지개다리

48과 53

양 영 선

(연서초 6학년)

2002년 6월의 어느 날
월드컵 출전
48년 만에 첫 승!

1950년 6월의 어느 날
서로 편 가르고
3년 동안 피 흘렸다.

참을 수 없이 나오는 감격의 소리들
참을 수 없이 나오는 가시 박힌 비명들
온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때는 미친 듯 울었고
그 날은 미친 듯 웃었다.

48년만의 승리라고
밤 새워 잠 못 이룰 때

53년 동안 피맺힌 가슴 안고
동일 기다리던 영혼들은



차가운 밤바람 맞으며
현충원에 누워 있었다.

통일 시 쓴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부탁했을 때
몰라~ 대충 알아서 써 했던 아빠도

밤 새 술 마시며 축구 얘기에
얼굴이 벌겋다.

48년 전부터의 부끄러움은
그렇게 되새겼으면서
53년 전의 부끄러움은
별씨 잊었나?

우리 민족 가슴 깨뚫은
저 화살에
기억 지우는 독이라도 발랐나보다.



이산가족 눈물 홍수도
별씨 말랐나보다.
추억의 앨범 속에 간혀
먼지 뒤집어 썼나보다.

잊지 말자.
민족의 아픔을.

48년만의 첫 승이라고
그렇게 기뻐했으니
53년보다 더 먼 통일의 어느 날엔
더욱 더 기뻐해 주겠지?

이제 시작이라고
두 손 불끈 쥐고
기쁨의 함성 날리며
마구 뛰겠지?

우리 할머니

박 영 희

(당진중 대호지분교장 1학년)

할머니는 팔십이 넘으시면서
"어머니, 아버님"하고
젊으셨을 적
가족을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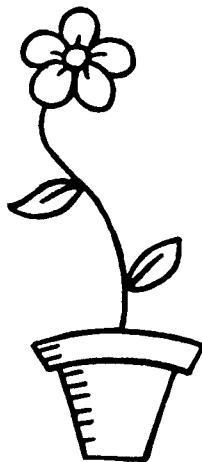
색 바랜 모시주름처럼
기인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억센 그리움을
이제야 토해내십니다.

반듯이 말아 올린
허연 뒷머리 채에
꽃힌 낡은 비녀처럼,
얄팍한 할머니의 가슴을
수없이 찔러대는 오래된 이름들.

이제 기억 속에서
사그라질 만큼
해가 수없이 바뀌었지만…….



"아버님과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터이고
오라버니와 형님도 이승에서 뵐 수는 없을 거야."
할머니가 이렇게 되뇌이시면
엄마 아빠는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지만
나는 할머니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가 아니 됩니다.



저택백산 기슭에서 먼동이 밟아온다

이 혜 란

(서천여고 2학년)

지아비 그리워 밤을 지새며 울던 눈물들
두고 온 처자식 생각에 앞을 가리던 눈물들
떠나온 고향 눈앞에 선하여 흐르던 눈물들
이 모든 눈물 거두어 구름 되게 해주오.
그리고 이 구름들 북녘의 소나기로 내려
그들의 가슴마다 촉촉이 젖어들게 해주오.

강남간 제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어서 이리 오너라.
이리와 이 무궁화씨앗 물어
백두산 곳곳에 뿌려다오.
봄이 되어 꽃이 피면
그 맑은 천지에 무궁화 향 배어
북녘 모든 강물에 끊임없이 흐르게 되리라.
동방의 무궁화향 세계로 퍼져 나가게 해다오.

불가사리야
깨어나라 어서 깨어나라
나와서 가지꾸나
나와 함께 저 휴전선으로 가지꾸나



가서 저 철조망
저 웬수 같은 철조망을 삼켜버리자.
서로 겨눈 총부리도 삼키고
굳게 닫아 놓은 마음속 철문도 삼켜버리자.

철조망이 삼켜지는
무궁화 향으로 가득한
어서 그 날의 해가 떠오르길
이 모든 눈물들 멈추게 해줄
어서 그 날의 해가 떠오르길
떠오름 속에 용맹한 호랑이 깨어나
세계를 호령하리라.

저 태백산 기슭에서 먼동이 밟아온다.

울 엄마의 봄이 되기 전에

이 나 라

(미당초 5학년)

부모님의 고마움을
빨간 카네이션으로
대신하던 그 날
증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00세로 천수를 다
누리셨다며 호상이라
남들은 말하였습니다.

어쩜 할머니는
보고픈 아들을 만나기 위해
100세까지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큰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늘 밥상 한쪽에



따뜻한 밥, 국 한 그릇 떠놓으시고
정한수 한 잔에 두 손 벌며
이제나저제나 하시던 중조 할머니.

"내일이면 꼭 올 것이여,
아암 꼭 오고 말구."
행여 아들이 찾아와도 길을 잃고 헤맬까봐
이사 한번 가지 못하고

밤에는 문고리도 잠그시지 못하며
기다린 지 어언 50여 년의 세월

아들 보고픔에 저고리가 젖고
아들 그리움에 눈언저리 진물 나고
아들 이름 석 자에
할머니 가슴은 멍들어 갔습니다.

그런 중조 할머니께서
보고픔을 이기지 못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먼저 가셨습니다.

따뜻한 밥, 국 한 그릇은
이제 우리 할머니의 뜻이 되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얼굴도 모르는 큰 할아버지를 위해
어제도 정성껏 북쪽으로
올리시던 정한수

그 언제쯤 끝날까요?

증조 할머니의 간절했던 바램과
우리 할머니의 정성에 날개를 달아
우리 모두의 소원과 함께
북쪽 하늘에 뿐려진다면
우리 하나되는 날
금방 오겠지요?

울 엄마의 뜻이 되기 전에
꼭 하나 되겠다고
꼭 통일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금강산아리랑

서 수 연

(간양중 3학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왕십리 실버들 푸르른 강물이었다.
강원도 아리랑이 뗏목을 타고
은빛 너울너울 오천 년을 흘러온 강물이었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보다도 더 조용했던 그 새벽
푸르른 안개 속에 은은하게 들려오던 구성진 아리랑을 삼키며
난데없는 포탄은 강물을 불게 물들게 했고
오백 원 짜리 녹슨 동전처럼 학들은 피를 토하며 나뒹굴었다.

오십 여 년의 세월은 흐르고
반세기 동안 유월이 와도 그 푸르른 유월이 와도
꽃보다 아름다운 진초록은 더 이상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아, 서부 전선, 동부 전선, 낙동강 전선으로 떠밀리며
한 쪽 다리로도 용케 살아 온 금강산이 고향인 뗏목쟁이 할아버지
유월이 오면, 눈물나게 찬란한 유월이 오면,
막걸리 장단에 맞추어 두 다리 생생한 월드컵 홍보 대사
가수 김홍국의 오십 년 왕십리를
총탄 맞은 학보다 더 절뚝 절뚝거리며 불렀다.



학수고대, 반세기의 기다림 끝에 찾아간 고향 금강산
환희에 찬 기쁨과 원망들을 물기 어린 눈 망울로 새기며
서먹서먹한 새색시 적 아내와 흰 머리카락이 다 된 자식들과의 상봉
아버지 절 받으시라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라요.
오십 여 년 만에 절을 받아보지만
보면 볼수록 새로운 얼굴이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 맷한 유월이여.

휴전선을 사이에 둔 푸르른 창공에는
그 날 스러져간 흰 국화 송이들만이 학처럼 날고
벽장 속에 고이 간직한 청자 속의 학들처럼 서려움이 날고 있지만
그런 학은 말고, 진정 그런 서려움은 말고
이제 남과 북을 오가며 유유자적하는 뗏목 닳은 학으로 날아오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가을에 꽃 퍼리라

김 희 선

(서천여정보고 2학년)

우리네 이웃은
정이 솟고 사랑이 있어
할배에서 손자까지
할매에서 손녀까지
목숨 걸고 피를 쏟고
살을 섞어 살아왔던 이 땅이 아니던가

아름다운 산천에
순박한 이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무궁화 진달래 개나리꽃인들
모두 다 제 빛깔로 어찌 반기지 않겠는가

짚세기 신고 산마루 들고 돌면
님을 쫓다 발병이나
님 그리며 먼 곳 바라보며
웃고름 적시며
해만 지물었다.

진달래꽃 붉게 물드는 산천은
해마다 봄을 알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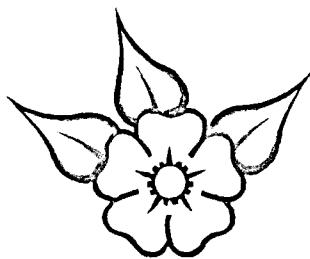
아이들이 누비는 합박웃음이
골을 돌아 이 땅에 퍼진다

지개 진 남정네는
어깨 힘이 절로 솟고
굵은 땀방울도 봄바람에 씻겨 가건만
지워도 지울 수 없는
혈육을 눈앞에 두고도 볼 수 없는
반병어리 된 사람들

오마니, 불효자식 이제 왔습니다
아들아, 그래 네가 살아 있었구나
그동안 어떻게 참고 견뎌 왔느냐
구름도 바람도 넘나드는 휴전선
어찌하여 우리는 멀리서 눈물만 삼켰느냐
녹이 슨 경원선을 다시 이어본다
서울과 신의주, 단동 장춘 모스크바를 이어본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목메어 울부짖던 한탄강
이제 한 서린 두 동강 철길을 끝없이 달려본다



어매 아배 찾아 목 메이는 사람들
봄이 와도 언 가슴 녹지 않는다
너와 내가 품에 안기는 그 날
이 땅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그 날
우리네 핏줄에도 따스한 봄이 와
맺혔던 언 가슴 꽃이 피리라



현장학습가는 날

조 호 현
(전의초 6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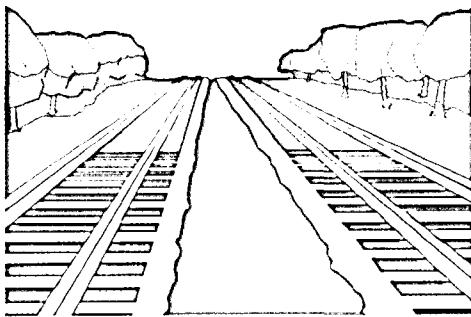
오늘은 즐거운 날
현장학습 가는 날
사랑이라는 버스를 타고
일만 이천 봉우리마다 걸린
슬픔과 가난을 지우려
금강산 가는 날

오늘은 기쁜 날
현장학습 가는 날
통일이라는 배를 타고
임진강 건너
북쪽 땅 산과 들에 널린
불안과 초조를 씻으러 가는 날

오늘은 행복한 날
현장학습 가는 날
사람들 가슴마다
한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햇볕정책으로도
이산가족의 큰 슬픔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휴전선을 넘어
분단이라는 글자를
단일민족 큰 지우개로
쓰윽 쓱 지우고
통일을 새로 쓰는 날



우리 어머니

이 태복

(동영중 2학년)

보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잠깐이란 세월이
오늘이었습니까?
내일이란 시간이
오늘이었습니까?
어머니 그리움에
하루를 울고 또 하루를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리움에
하루를 또 하루를 잠 못 이루었습니다.
어머니 그리움에
사립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옛 기억조차 아득히 희미한데
백발의 꼬부랑 할머니로



못난 아들 보려고 이제야 오셨습니까?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내일은 이 못난 아들이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평생을 이렇게 웃으며 살아요.
우리 어머니



무지개다리

이 정 옥

(부여여고 1학년)

남과 북 사이로 고리가 걸리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뚝 선
매서운 철조망을 녹이고서
알록달록한 무지개 다리가
동그랗게 걸리었다.

새까만 아우네 장터에서
아우도 형님도 잊은 채
서로에게 총부리를 거누던
어제를
하얗게 씻어 주고,

이별이라기에는
너무나도 길었던 시간 동안
가족도 동무도 잊은 채
메말라 버린 내 가슴에
사랑의 씨앗을 뿌려 준다.

가잔다.
가잔다.



향기 그윽한 꽃마차 타고서

알록달록한 무지개 다리를 건너
북으로 가잔다.

할아버지 살아 계실 적에
그토록 밟아 보고 싶으시다던
북쪽 땅을
쉰 해가 넘은 지금에서야
밟아 보란다.

나 갈란다.
이제 나 가볼란다.
북쪽의 땅을 밟고
동무들과 손잡고서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통일의 노래를 불러 볼란다.



경상북도

- 통일 주머니
- 아기의 걸음마처럼
- 늙은 소녀
- 통일이 되는 날의 교실 풍경
- 풍경
- 꿈
- 만남
- 통일이 될 그 날까지…
- 거래의 소원

통일주머니

박 성 지

(0) 천초 3학년)

월드컵 응원으로
기쁨이 가득한 날
한반도에 물결치는
붉은 천 조각들을 모아
통일주머니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주머니엔
16강 이룩해 낸
축구대표팀의
승리 소식을 담고

두 번째 주머니엔
배고픈 친구들을 위한
맛있는 음식으로
따뜻함을 담았어요.

세 번째 주머니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줄
사랑의 편지들을



꼭꼭 눌러 담고

마지막 주머니엔
52년 세월 동안
우리 모두가 소망해 온
통일의 마음을 담았어요.
내가 만든 통일 주머니가
북한 친구들에게
전해지는 날
우린 두 손 꼭 잡고
승리의 노래
힘차게 부를 거예요.



아기의 걸음마처럼

이 인 경

(영천성남여중 2학년)

늙은 촌로의 미소처럼
잔잔히 울려오는 통일의 종소리
까치의 울음처럼
희망으로 들려온다.

멀어만 보이던 꿈결 같던 통일
아기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빼며 다가온다.

아가야!
넌 저 철도 위를 달리는
꿈의 기차가 되어보렴!
겨레의 미소가 네 기적소리만큼이나 크게
온 누리에 퍼져갈 수 있도록……

아가야!
넌 저 하늘 위를 자유로이 날아가는
꿈꾸는 파랑새가 되어보렴!
한민족의 노래가 네 울음소리만큼이나 아름답게



온 누리에 울려갈 수 있도록……

첫 나들이를 나선 아가야!
긴 반세기 외면의 높다란 담벽이
아직 키 작은 너의 눈에는
낯설고 두렵게만 보이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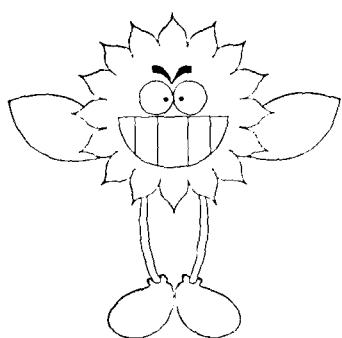
하지만
너에게는 파릇파릇 피어오르는
새싹 같은 희망이 있지 않니?

언젠가 너의 키가
엄마만큼 훌쩍 자라나면
그땐 담쟁이 넝쿨이 담벽을 넘듯이
우리의 희망도 남북을 넘나들겠지.



그 때

너의 미소가 환하게 번져가듯
잔잔히 울리는 통일의 종소리
겨레의 합성과 함께
희망으로 퍼지겠지.



255

경상북도



늙은 소녀

— '최정선' 할머님을 위해 —

이 다 은

(포항여고 2학년)

반세기 할아범을 기다린

늙은 소녀네.

털어버린 담벼락 가득

억척스런 삶의 향내가

오늘도 햇덩이가 되어

전선(戰線)을 가로지른다.

북녘.

거기에도 햇살이 따스하겠지.

더 이상 내달리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에

괜스리 할아범이 원망스럽다.

'새색시 생겨 내캉은 버리고 도망갔던거라요.

나 죽기 전에 함 봤음 좋겠시오.'

움푹한 손금을 따라

누렇게 찌든 기억.



역사가 기록하지 않는
애달픈 추억만
아쉬워 종착역에 젖어있다.



통일이 되는 날의 교실 풍경

이 시 훈

(구미신평초 6학년)

통일이라는 소식이 나오는 순간
아이들뿐만 아니라
필통 속 연필
가방 속 책들이
모두 나오는 것이었다.

교실은 책상들까지
딜컥거리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다 그리고
평양 가는 찻길을 그려 놓고
백두산까지 달리는 바람과 함께
저 멀리 구름 타고 달리는 것이었다.

교실 뒤편 그림 속의 꼬마들도
같이 동행할 듯이
모두 튀어나와 웅성거린다.

도무지



그림 속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

드디어 통일이 됐다.
나누어진 허리가 너무 아파
더 이상 벼밀 힘이 없어

우리는 다시 합쳤다.
더 이상 나뉘어져 있기 싫어서……

이제부터 더 열심히
소나무는 산에 서서 푸르고
조약돌은 바닷가에서 반짝거리고
교실에 있는 너희들은
그만 네 자리에 들어가거라

선생님은
조용히 타이르는 것이었다.



풍 경

—'길영진' 할아버지를 위해 —

이 주 은

(포항여중 3학년)

닳아 없어진 손톱일랑
두 손 꼭 쥐어 숨겨버리고

핏덩이 두고 온 북녘
반을 찾아서
남루한 옷자락을 부빈다.

"여태 뭐하며 지냈는겨.
우리 지나간 세월은 물기로 혀."

억척스레 떠메고온 삶이
강이 되어 흐르던 날.
미쳐 물어버리지 못한

쉼은 추억만
헐어진 풍경을 울린다.

*길영진(81) 할아버지는 지난 4월 28일 금강산에서
북녘에 두고온 이영희(75) 할머니와 반세기만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꽃

김 유 선

(성주여고 3학년)

개나리가 피고 진 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흘렀구나.

철조망 너머로 보이던
피에 젖은 물골의 오라비,
나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금이 갔다.

꿈에서 만난 오라빈
항상 겁에 질린 얼굴로,
고통 섞인 울음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그리워했노라고,
보고싶노라고,
전신으로 대답했다……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린 지금에서야
그립기만 한 오라빌 위해 꿈을 키운다.

철조망이 진 자리에 피어날 희망을 바라보며,
웃으며 보게 될 오라빌 기다리며…….



만 날

전 승 리

(유림초 4학년)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포근히 내미시던
그 등이 그리워

그리움의 끈으로
징검다리 만들고

하루를 못 보아도
천년 같이 느끼는데

반 백년을 못 보니
그 마음에 한 되어

그리움의 한은
억겁으로 쌓여



그 한의 매듭으로
징검다리 만들었네.

그립던 내 어머니
보고픈 내 아들아

그리움으로
한으로

부동켜안으며
눈물꽃 뿌리니

징검다리 눈물꽃은
온 마음에 씨 되었네.

통일이 될 그 날까지...

장 재 호

(상주중 2학년)

남쪽의 하늘이 울었습니다.

북쪽의 땅도 울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북쪽의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남쪽의 아들도 울었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같은 한반도에 태어나

반만년 살아온 세월,

가슴 속 깊은 곳에 아픔을 갖고

서로를 향하는 그리움을 봅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38선에 걸려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늘 높이 훨훨 나는 새들처럼



물 속 깊이 넘나드는 물고기처럼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 희망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보지 않았어도
만나지 못했어도
서로를 향한 그리움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다 함께 웃고 살 수 있는
통일이 될 그 날을
만들어 갑니다.

겨레의 소원

김 순 화

(수비고 2학년)

널리 인간을 이름게 하라.
단군의 간절한 소망 담아
파이랗게 열린 겨레의 문.

가시 박힌 철조망은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원망의 금이 되었다.

수 많은 날들, 세월의 흐름에
핏빛 아픔은 더욱
굳어 버렸다.

늘 닿는 하늘과
늘 만나는 바다가
말없이 지켜보기 어언 반 백년.
시퍼런 잎새들이
슬픈 유월의 역사를 말하고,
발 밑에 깔린 지뢰를
목이 멘 듯 바라보는 휴전선이
슬픈 한숨을 짓는다.



푸르른 배달 민족의 기상은
아직 6·25를 아파한다.

통일이라는 환상 속에서,
허망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지켜가고 있다.

그대들이 붉은 사상 다 버리고
진정으로 속마음 껴안아
한 마음이 되어
단군의 후예로 남을
그 날을 위해

우리 단단히 가슴 여미고 준비하리
통일의 그 날을…….

영성남도

- 태극기
- 친구야
- 붉은 파도
- 나의 어머니, 태극기
- 붉은 꽃
- 2002 월드컵
- 태극기
- 태백의 메아리
- 하나된 월드컵

태극기

김 마 리 안 나

(계룡초 6학년)

유관순 언니
독립만세 부르던
광화문 네거리의 태극기가
중앙청 꼭대기에
휘날리던 태극기가

이제는
태극 무늬도 선명하게
월드컵의 깃발로
세계를 혼든다.

이 태극기의 합성을
북으로 보내자.
백두산 꼭대기에도
한라산 언덕에도
자랑스레 휘날리는
통일의 깃발이 되는 날까지……

친구야

이상은

(마산합포중 3학년)

친구야, 너는 무얼하니?
반만년 역사가 숨쉬어온 이곳
전 세계가 온통 한반도를 주시하는데

친구야, 너는 틀리니?
"대한민국!"
터져나가라 외치는 민족의 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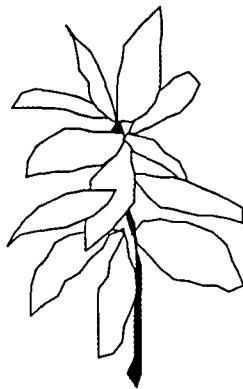
한 민족이 같은 하늘아래
이렇듯 함께 외치지 못함이…….

친구야, 너는 보이니?
해가뜨고 질줄은 모르는 동쪽
눈앞에 붉은 물결이 파도치고
우리같은 소리에 모두 날아갈 듯한데

친구야, 너는 느끼니?
한글 한글 민족의 소망이
담긴 골 들어갈 때마다
서로 열싸안고 함께 숨쉬는 것을.



친구야,
철조망 너머로 날아가는
희망찬 빨길질에
너와 내가 붉은 물결되어
함께 할 날이 오겠지.
함께 외칠날이 있겠지.
"필승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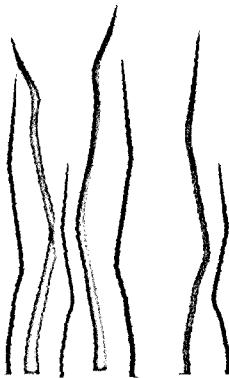
붉은 파도

정 수 예
(남산고 3학년)

"대한민국"
한반도를 뒤흔드는
메아리 소리
여기저기 붉은 파도로
가슴 설레이이고
하나되는 이곳에서
가슴속 고이 쌓아두었던
그 서럽던 울분이
한줄기의 빗방울이 되어
설레이던 이 가슴을 적신다
두 불을 적시는 이 눈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 날에
저쪽 넘어에서
차가운 이 땅의 허리를
외로이 지키고 있을
또 다른 나와
떨리는 두손 힘껏 잡아본다
마주 잡은 두 손 넘어
너와 내가 하나되어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졸라매던 그 끔찍한
허리끈 풀어버리고
한 마리의 파랑새되어
붉은 파도 향해 날아가리



나의 어머니, 태극기

김 혜 령

(월포초 6학년)

태극기……
32개, 아니……
100만개의 국기를 펼쳐놓더라도
두눈을 꼭 감은채
단 한번의 손짓만으로
태극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피어있는
존경의 눈으로……

바람에 펼려이는,
붉은 악마들의 머리위에 춤추는,
5살짜리 아이 볼의
태극기는
당당함과 자랑스러움
본받고 싶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땅덩어리 수천만년 돌고 돈
그 날의 하늘에는
나의 어머니 태극기,



모두가 우러러 볼 인자한 얼굴로
펄럭이고 있으리
마치 우리민족의
영원함을 자랑이라도 하듯.



붉은 꽃

김 효진

(삼계중 2학년)

붉은 합성이 일렁거리고
붉은 바다가 파도치는 이 순간
붉은 피눈물로 태어난 철조망꽃은
자꾸만 자꾸만 자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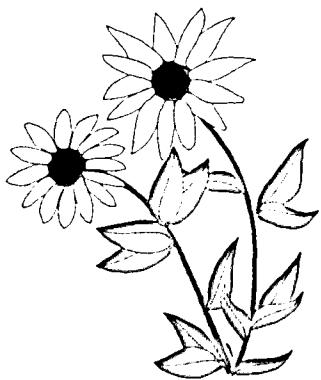
우리의 꿈과 희망과 기쁨을 빼앗고
반년을 살아온 꽃을 꺾지도 못한 채
골대의 그물을 관통하는 저 열정 담은 공이
마음 속 피로 엮인 그물을 부숴버리는
한 겨레의 힘이되길 기도한다.

엄마품 대신 피바다를 해매어야 했던,
엄마소리 대신 절규하는 신음소리를
자장가로 삼아야 했던,
내 피로 내 몸을 적셔야 했던
그 모두가 기도한다.

뜨겁게 달아오른 응어리를 담은 공아
너는 자꾸만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서



50년간 독을 품었던
저 철조망꽃을 짓밟아버리고
달려가려 했지만 갈 수 없었던
통일로의 문을 뚫어버려라
한 번도 함께 할 수 없었던
남과 북의 마음을 네가 묶어버려라.



2002 월드컵,

최 원 석

(진해고 3학년)

반쪽뿐인 이 땅에
온 국민과 세계인들의 시선이
작지만 크나큰 공
그 공 하나에 쏠리고
지구촌의 작디작은 축제는
우뢰 같은 함성 속에서
시작을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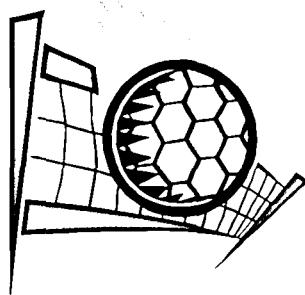
48여 년의 한.
한국의 1승.
그리고
16강 진출의 염원
쓰디쓴 인내와 노력
그
꿈들을 현실로 앞당기며
눈물을 머금는다.

언제일지 기약 할 수는 없지만,
1승을 기원하던 그 마음보다
16강 진출을 염원하던



그 때보다
단장한 마음으로 바란다.

반쪽뿐인 땅이 아닌
하나된 땅에서
두 손을 마주잡고
우승의 기원할
그 날을……



태극기

최성진
(등산초 5학년)

맑은 하늘
더 높이 휘날리는
찡한 감격을 보셨나요?

베란다 끝
이리 저리 나부끼는
조용한 평화를 보셨나요?

그 벽찬 감격과
그 향기로운 평화
반쪽 뿐이란걸 아시나요.
그래서 가슴이 몽클한 것도요.

한반도 끝에서 끝까지
하나의 국기로 가득 찰 때
내 가슴 속 반쪽도
완전해 질거예요.



태백의 메아리

이 화 정

(함안여중 2학년)

세계가 술렁이는 한마음 한 축제
그 축제의 주인공 붉은 악마들
드높은 태백과 함께 소리칠 때

태백줄기 따라간 응원소리
마주보는 저 북한 땅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응원소리에 묻어간 민족의 염원
하나되어 부를 수 있는 응원가라면
태백줄기 이어진 응원가라면

민족의 마음까지 와닿는
태백의 숨쉬는 메아리되어
통일의 염원도 함께 메아리칠텐데

붉은 악마 응원 속에
남과 북 한민족 하나되어
세계로 울리는 메아리 한번
입모아 마음모아 불러봤으면



하나된 월드컵,

서 수 인

(고성중앙고 2학년)

2002년 월드컵이
두 동강난 한반도에서
열리었습니다.

남한의 하나된 열기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기쁨의 탄성을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메아리가
한 하늘 아래인데도
북쪽의 벽을 넘지 못하고
되돌아왔는지,

온 세계인의 화합하는
가운데엔
북한의 국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설움과 아픔을



몰아내는 비상구가
되었더라면,

남북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두터운 벽이
허물어 졌더라면,

지금 월드컵의
환호와 감동을
함께 하였을텐데…….

남북한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뛰는
그 날이 오기를,
'대한민국'을 함께 부르짓는
그 날이 오기를…….

그리하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필승! 코리아'의 환호가 넘쳐나기를



전락복도

- 다섯 손가락의 의미
- 민들레 훌씨되어
- 철조망
- 너를 초대하고 싶어
- 닫힌 문을 두드려
- 옛날 이야기
- 평화롭고 작은 연못
- 바람
- 축제

다섯 손가락의 의미

김 강 지

(전주반월초 6학년)

다섯 손가락 중
엄지는
우리 민족이 최고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듬직하게 있고

검자는
북한아이들이 우리에게
"넌 누가 소중해?"라고
물어보면 너라고
찍어줄 수 있게 있는 거래.

그 중에서도
약지는 제일로 잘났어.
침 바른 다음에
자기영역이라고
표시해놓았던 곳은 다
똑같이 해놓으며
함께 살자고 하니까……



중지와 새끼는
아직 할 일이 없대
애네 둘이는
통일이 되면 할 일이 너무 많거든.

무슨 일이나면
중지는 누가 우리나라 옥하면
우리도 같이 혼낼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새끼는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함께
약속해야 하거든.

우리 손에 있는 다섯 손가락은
이렇게 할 일들이 많아.
어디 다섯 손가락이
제 할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민들레 펴 쓰 되어

박 소 리

(전주기전여중 3학년)

화약 연기 피어나던 돌무덤에
작은 민들레가 피었습니다.
비목에 걸린
총알자국 철모도 내려다 봅니다.

벌써 51년이 지났네요.
앞개울 변함 없이 흐르는 물줄기 사이로
용사들의 마음도 흐르겠지요.

전쟁 속
두려움과 외로움 절망감 속에
그려지던 얼굴 '이머니'
스치는 총알과 핏빛 물들던
잎새들 사이로 간간이 비쳐드는
햇살 같은 희망을 가져 봤지요.

마지막 보았던
두 눈 가득 들어오던 빛줄기
고통 속에 느껴지던 편안함



이제 조국을 지키던
뜨거운 마음 훌러 훌러
내 마음에 전해집니다.

싸우지 말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고
한 발씩 양보하고 살아가라고……

돌무덤에 흙도 앓아 꽃도 풀도 자라납니다.
용사들 가족 마음 속 무덤에도 꽃을 피우겠지요.
삼천만 깨어나는 통일의 새벽이 되면
민들레 훌씨 되어 훨훨 날아
희망의 꽃씨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칠조망

여동한

(전주전일고 2학년)

짓밟힌 흙에 묻혀 녹슨 대로 녹이 슨 쇠
원한의 자물쇠야 풀어질 날 언제인고,
오늘도 이 자리 서서 발자국만 찍는데

뜨락에 둘러놓아 바래버린 이 가슴
찢겨간 자국들, 그 속맘 누가 알랴
가는 길 가로 막히어 몸부림에 뒹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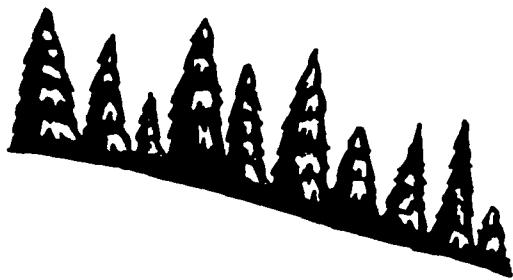
단단한 빗장위로 걸어올라 넘는 마음
숫돌에 낫을 갈아 삼팔선 베어내어
너와 나 갈린 이 땅을 이어보고 싶구나.

오늘도 아니 보면 언제 볼까 그 모습을
아쉬워 울던 가슴 이제도 못 다 했네
누군가, 이런 내 마음 알아 줄 그대는!

지난 날 돌이키는 우리네 한 시름을,
세월에 파인 등 아픔을 삼켜가며
분단의 서리 묻은 채 숨죽이며 울었다.



가고파라, 울부짖어 바라던 그 날로
그 언제 만나자고 약속하며 떠나올 때,
음지에 가렸던 염원 다시 한번 일어서라!



너를 초대하고 싶어

박지영

(고산초 6학년)

"대—한민국, 대—한민국!"

목청 둑구어 응원하네.

"오—꼬래아, 오—꼬래아!"

힘찬 박수를 보내며 환호하네.

온 들이

온 벌판이

붉은 물결 되어……

하지만

작년 6월 13일

"대통령님— 장군님—"

또 하나의 붉은 물결

뛰고 또 뛰고…

환호의 물결이

아직도 생생한데



굳게 맞잡은 손 어디 가고

빈 가슴 빈 공터
그 넓은 순항공항만 남아있네.

따뜻한 옷, 포근한 잠자리
우리 집에 준비된 것도 아닌데

"오——꼬레아, 오——꼬레아!"
외칠 때마다
가슴 한 구석 의로움은
붉은 파도 되어
북으로 북으로 넘어가는 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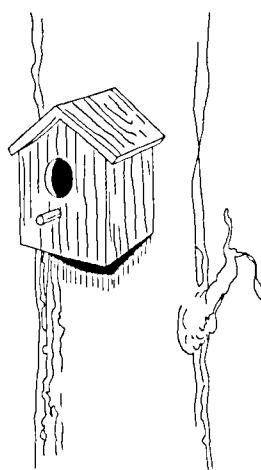
아—아
정말 오늘 같은 날은
너를 초대하고 싶구나

우리 빨리 어른 되어
이기심도, 욕심도



붉은 물결 속에 날려버리고

우리 그 때
나라의 튼튼한 기둥이 되었을 때
너를 초대하고 싶구나.



닫힌 문을 두드려

김 진 영

(전주동중 3학년)

스산한 바람 부는 세상
매운 계절에 웃깃 여미던 우리는
어둠을 어둠이라 하지 못했고
그리움을 그리움이라 하지 못했다
다만 그저 둥지 밖, 새가 되어
투명이 흐르는 강물을 응시한다.

강물은 저 홀로 흐르지 않는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스스로 마음을 열어
서로를 받아들이며 흐르더라
때론 어깨를 걸고 마주쳐 흐르더라
어둠이 있으매 빛이 있고
오늘이 있으매 내일이 있듯
강물은,
서로의 아픈 상처를
사랑으로 껴안으며 흐르더라.

스산히 불어오는 바람
아직 꽃필 날 멀다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얼음 깨지는 소리
하여 봄이 오는 소리
춥고 어두운 겨울 밤
떨고 있던 새들의 비상을 위해
남북이 닫힌 문 두드려
우리는 가야 하리라
우리가 두 손 맞잡는 날
우리가 닫힌 문 열어 사랑인 날
오,
우리는 영원한 하나이리라.



옛날 이야기

성 하 석

(군산제일고 2학년)

하늘이 보랏빛으로 변하고 한 두 방울 비가 떨어진다.
세상을 삼킬 듯 검게 변한 바다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바닥에 소주병이나 텅굴어도
석고상이 된 그 노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고기잡이 집 한 채…

꼭 이런 날이었단다.
노을진 바닷가에서 조개를 춥던 순돌이와 동생 순이는
은빛 가득한 고깃배를 기다리며 노래를 불렀단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고기잡이 집 한 채…
어머니가 망태기에 고기를 담고 시장으로 달려간 날
오두막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오르고 웃음꽃이 웠단다.

땅이 둘로 갈라지던 어느 날,
검은 파도가 뱀의 혀처럼 널름거리고
금속성의 쇠 소리가 마을 가까이 들릴 때

순이는 심한 고열에 시달렸단다.
마을 사람들의 재촉과 성화에 순돌이를 데리고 남으로 왔단다.
곧 데리러 오겠다며……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꾸었지만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7·4 공동 성명, 남북 이산 가족 찾기, 북한방문단 서울 도착……

연일 떠들어대는 기쁨의 소리에도 순이는 어느 곳에도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소주병과 함께 물거품이 되어 바다로 되돌아갔다.

오늘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백발의 노인네가 바닷가를 응시하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방송에선 앞다투어
금강산에서 만난 오누이의 소식이 신파조처럼 들리건만
아픈 순이의 모습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파도가 바다를 삼킬 듯 넘실대는 저 물결 속에 한숨을 실어 보냈다.
빗방울이 굵어지고 파도가 집채처럼 밀려와도
노인은 아버지의 그 자리에 그냥 돌처럼 앉아 있었다.
순이야……
순이야……
미안하구나!



평화롭고 작은 연못

김 희 정

(부안주산초 5학년)

숲 속 조그마한 연못
그 연못은 평화로웠다.

어느 날 못된 천둥, 번개가
우르르 광황
연못은 훙당물이 된다.

천둥, 번개가 가고 난 연못
반으로 갈라졌다.
연못은 그냥 작은 웅덩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수십 년을
그렇게 아프게 살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 두 웅덩이를
하나로
붙여주려 한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



예전의 연못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이겨낼 것이다.
머지않아
연못의 허리는
말끔히 나을 것이다.
평화를 찾을 것이다.

많은 고기들이 서로 어울려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바람

최 소 라

(정읍여중 3학년)

바람에게서
그리움이 베어 나온다.

그리움을
바람이 전해주었는지도 모른다.

아스라이 멀어져만 가던 사람에게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에게
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 여기 있다오…
나 여기 기다린다오…
나 이제는 보고 싶소… 라는 그리움.

그리움을 고스란히 담아
바람이 전해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바람에게서
아픔이 베어 나온다.



아픔을
바람이 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봉오리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 생명이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는 아픔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커져 가는
피빛 눈물이…

이제는 빛이 되어 버린 생명이
안타까워
시간의 흐름이 아픔이 되는 게
안타까워

안타까움이 사무쳐서
사무친 안타까움을
바람이 꼬옥 껴안고 있어서
이내 바람에게서
아픔이 베어 나오는 건지도 모른다.

바람에게서
환희가 묻어 나온다
환희를
바람이 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바람이 고스란히 안고 온
환희 속에 묻어나는
웃음,
기쁨,
눈물.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 때문에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와 주는 사람 때문에
부둥켜안고 울 수 있는 사람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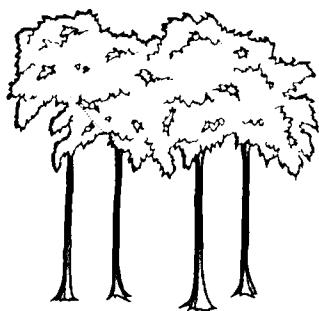
얼싸 안고 춤을 춘다.
부둥켜안고 눈물 흘린다.
쉴새 없이 속삭인다.

그 소리가 너무 기뻐



귀기울여 줄 사람 위해
바람은 환희를 품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바람이 분다.
그 날의 기쁨이.
바람이 분다.
그 날의 눈물이.



축 제11

정 월 명

(남원여자정보고 1학년)

말라붙은 눈물아!
이제는 씻어내라.
녹슨 철길 아래 깔린 분단의 아픔,
임진강 젖줄 되어 녹아드는
그 날의 와침이 준비되어 있나니.

묻혀있던 희망아!
이제는 깨어나라.
피눈물로 얼룩진 망향의 통곡,
그 해 8월 광복의 끝을 맺는
'만세'의 깃발이 우리 곁에 나부끼다니.

망각의 강,
건너지 못하던 망자의 넋들아!
축제의 그 날 멀지 않았나니,
칠천만 어깨 부딪는 덩더꿍 춤이 되어
오대양 너른 물결로 넘실거려라.



전라남도

- 바람을 멈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하나되는 그 날은……
- 할머니의 소원
- 소망의 나무
- 햇볕 따뜻한 집이 그립다
- 염원
- 6월의 아침을 열어가며……
- 동무야 보아라
- 6월의 기다림

바람을 멈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 가 애

(광양중진초 4학년)

우리 아빠 고향 마을에
밤나무 두 그루 다정히 서 있지요.

바람만 불면
밤나무 두 그루 가지마다
서로 부딪치며 삐끄덕 삐끄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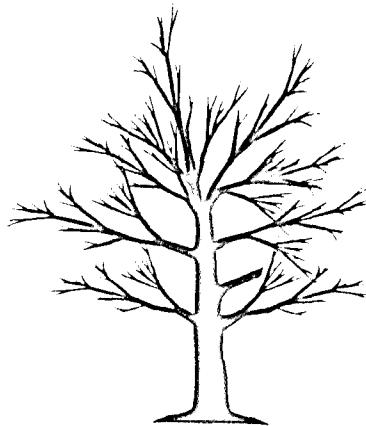
나뭇가지마다
껍질이 벗겨져 상처가 나고
봄이면 파란 나뭇잎이
돌아나지 못하지요.

우리 나라 대한민국
부모형제
두 나라로 갈라져
언제나 바람 멈추고
조용조용 사는 대한민국이 될까요?

텔레비전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지 않고 사는 나라



나는 바람을 멈추는 소녀가 되고 싶어요.
남북을 가르는 바람을 멈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되는 그 날은.....

강 미 랑

(광양제철중 3학년)

한 송이 무궁화
붉게 짓밟히던 날,
내 나라 내 조국
기세 당당, 용감 무쌍
범 등허리에
설움 가득한 상처를 새긴다.

푸른 삼면 갈매기는
윗동네 아랫동네
짝을 찾아 속삭이는데,

녹슬은 철조망
가시마다 한이 되어
눈물 젖은 메아리로 걸려 있네.

새 천년이 용트림 치던
유월 보름
우리는 하나 되어
언약하고 다짐했네.



아, 아!

손 뺀으면 달을 듯 헌데
왜 이제 왔느냐,

내 오마니!

내 아들

세월 속에 묻어둔

내 혈육

이제사 만나네.

반 백년의 한맺힘이

주름주름 계곡으로

봇물 되어 흐르네).

잿빛 구름 속

붉은 태양

온누리에 비칠 그 날은…….



할머니의 소원

정 미 자

(진도실업고 2학년)

명절 때면
통일 전망대에 올라
푸르스름 안개 낀
그리운 들녘을 바라보며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촉촉한
월남 할머니.

‘저그가 내 고향이여’
생생한 고향 정경,
우물 지키고 섰는 미루나무

서른 살에 보따리를 이고
부르튼 발 물집을 짜며

걸어 왔다는 들녘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북녘 산하.

전망대에도
진달래 피었다고
애틋한 심정으로
진홍빛 꽃잎 뜯어
질겅질겅 씹어보는 그리움.

‘내 눈에 흙이 들기 전에
얼른 통일이 와야제.’
살아 생전 가고파
통일을 기다리는
월남 할머니의 소원.



소망의 나무

김 미 현

(신진초 5학년)

볼 순 없지만
이야기 할 순 없지만
느낄 수 있어요
곁에 있다는 걸……

손잡을 순 없지만
같이 놀 순 없지만
알고 있어요.
우린 친구라는 것을……

확실하진 않지만
언제 될진 모르겠지만
믿고 있어요
언젠간 통일이 꼭 될 거라고.
키워가고 있어요
통일이라는 큰 소망의 나무를……

그 소망의 나무가 어서 커서
그 노력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어요!



햇볕 따뜻한 집이 그립다

강 지 수

(강진대구중 1학년)

어둡고 침침한 이 집에서 떠나고 싶다.
나의 햇볕 따뜻한 집이 그립다.
맑은 햇살과 푸른 시냇물이 나는 그립다.
멍멍개가 짓고, 솔솔바람 불던 집

늘 행복이 가득했던 나의 집
지금은 그 어느 것도 볼 수 없다.
아—아 그립구나 나의 가족이여
아—아 그립구나 나의 집이여
언젠가는 만나리라 언젠가는 가보리라.
나의 고향 나의 집으로

그 때는 꼭 함께 하리라.
햇볕 따뜻했던 나의 집이여

50해라는 긴 세월 동안
나의 집도……
나의 가족도……
많이 변하였겠구나.



선 넘어 내 고향
선 넘어 나의 집
선 넘어 우리 가족
저 선 넘어 나는 행복찾으러 가련다.

그리운 나의 햅볕 따뜻한 집이여
그리운 나의 가족이여
지금쯤 마당의 오동나무 꽃폈겠지.
멍멍 짖던 누렁이 장가갔겠지.

아—아 그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
아—아 금방이라도 달려와 품에 안길 것을
왜 우린 아직도 갈라져 있는가
왜 우린 만나지 못하는가

통일 이루면 달려가리라.
나의 집으로…… 나의 가족에게로……
통일 이루면 통곡하리라.
기쁨으로 벽차 오른 가슴 잡고 통곡하리라.

햇볕 따뜻했던 나의 집이 그립다.

염 원

박 익 수
(창평고 1학년)

한반도의 허리가
찰려나간 날이 있었다.
단군이 서럽게 목놓아
울던 날이 있었다.

모든 유혈은 한낮의 꿈처럼
모든 고통은 한줄기 바람처럼
모진 풍파와 가슴 시린
아픔의 반세기
그 날의 포성
그 날의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던가.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백두대간의 허리를 끊어 놓고
불신과 이질감은
정마저 단절시켰거늘
아직도 겪어야 할 아픔이 남았나

이념의 차이가 무엇이고
체제의 갈등이 웬 말인가
이미 우리는 하나인 것을



그 옛날

만주 벌판을 누비던
고구려의 후예가 아니었던가
청아한 창공을 흐르는 구름은
민족의 한과 꿈을 싣고서
말없이 북으로……

그 날이 오면

천지가 개벽하고
반도의 혀리에도
초목이 우거질
조국 통일의
그 날이 오면

남산의 무궁화
먼 길 오시는
그리운 님 가슴에
고이 안겨드릴 텐데

이제 다시 한번 도약할 때
우리 가슴에 비원 일으켜
불사의 민족혼 불사르리
찬란한 민족 문화 꽂피우리.



6월의 아침을 열어가며.....

이 상 님

(나주초 6학년)

파이란 6월의
하늘을 바라보면
북녘 땅이 그리워요.

금강산 일만 이천봉
백두산 맑은 천지가
더욱 보고 싶어요.

말로만 들던 이름들이
신비로운 탄성으로
자꾸자꾸 뿐려져요.

텅 빈 짓기장에
연필로 써 내려가면
통일의 꿈도 따라오지요.

아버지, 어머니도
이루지 못한 꿈
나만은 꼭 해낼래요.



두발은 있으나
가지 못하는 그곳엔
어두움이 깔려 있어요.

눈만 감아도
까만 밤이 달려와
내 곁에 잠을 자요.

작년 여름 장마에
눈물 흘린 혼적도
지워지지 않아요.

무궁화 꽃잎에
통일을 그려 놓고
6월의 아침을 열어가요.

이젠 우리 모두
한 자리에 오순도순
사랑할 일만 남았어요.



동무야 보아라

이 주 리

(고흥도화중 3학년)

동무야!

미소 짓는 하늘이 나를 쳐다볼 때
너 또한 그 하늘을 보고 있겠구나.
따뜻한 공기로 내가 숨쉴 때
너 또한 그 공기로 숨쉬고 있겠구나.

동무야!

어젯밤에는 말이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백두산도 오르고,
열띤 축구 이야기하며
한강 둔치도 같이 걸었어.
잔돈과 사슬돈을 가지고
주먹밥과 채기밥을 사서 나눠 먹었어.

동무야!

눈을 뜨니 어젯밤 꿈이
허무하구나
창 밖의 변하지 않은 별빛이
날 더 안타깝게 하는구나.



동무야, 언젠가는
햇살의 미소 속에서
너와 나의 붉은 심장소리 들으며
뛰어보자꾸나.

그러다 지치면
한강에서 냉수욕과 찬물 미역을 하고
나무 등 쪽 아래에서
냉 쥬스와 찬 단물을 나눠 먹자꾸나.
너와 내가
하나와 하나가 더해져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꾸나.

6월의 기다림

한 정 선
(석곡고 2학년)

풀벌레
지독하게 울어대던
그 날의 새벽

꽃단장하여
찾아온 눈부신 봄은
온데 간데 없었다.

온 세상이 놀랄 만큼
처절했던 총성과
메마른 땅을 서럽게 울린
어머니의 통곡

고요함 속에서 들리던
이별의 외침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아닌
둘이 되어가고 있었다.



50년의 세월만큼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날의 기억은

유리알의
파편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억누르는 무거운 돌이 되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물을 떨구게 한다.

이제는
그리움에 목이 매어
스러져 가는
목마른 이의 가슴속에서
조심히
피어나려는

서로의 꽃망울을

서서히
고개 드는
이해의 눈동자들

말없는 보살핌으로
기쁨의 손짓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기다린다.



제 주 도

- 출렁이고 싶어라
- 가시밭길 앞에서
- 헬베의 일대기
- 화분의 통일
- 내 작은 업서를…
- 풀잎의 편지
- 북한친구를 닮은 백구
- 소망
- 거울바람

출렁이고 날아라

김 미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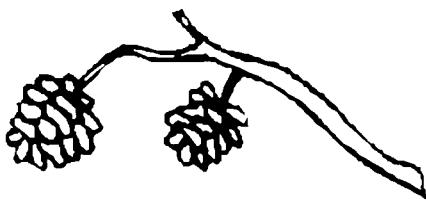
(홍산초 6학년)

늠름했던 백두산 호랑이
허리쪽에 매여진
시퍼런 가시 철망을 바라보다
쪽빛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를
슬픈 눈으로 바라본다.

한 마리 새가 날기에는
하늘이 너무 넓다
흰 구름 한 조각
친구라도 되어주면 좋으련만
그 하늘 더욱 푸르러
날개짓 더욱 애처롭다.

백두산 정기를 받은 호랑이
한라산의 젖줄을 먹고 자란 새
그들은 본디 한 뱃속에서 태어났으니
속에서 끓어 오르는 혈육의 뜨거운 정은
꽃보다 더붉어라.

아, 서로 그리워한지 오래 되었으니
가슴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을 들어
호랑이 허리 시퍼런 철조망을 잘라내고
어화동실 춤을 추고 싶어라
출렁이고 싶어라.



가시밭길 앞에···

박 민 아

(서귀포여중 1학년)

그대와 나를 떨어뜨려 놓은
쇠로 된 가시밭길 앞에서
가려던 발은 멎고
참아야 하던 눈물은 멎지 않사옵니다.

겨레의 가냘픈 숨소리가 새는
가시밭길 먼 발치에
핏빛으로 번져가는 노을이 있고
어느덧 화안한 달빛이 덮습니다.

오오···
그 달빛이 있기에
어언 반세기
우리는 만날 것이라는
다짐의 목소리가 들리옵니다.

곁방에 누인 새아씨마냥
발그레한 얼굴로 두 손 잡고
잔디밭에 풀썩 누워
배시시 웃던 나의 형제여



그 목소리가 그리워
가끔 그 잔디에 누워
형제를 만나는 그 순간을
가지런히 하늘에
수를 놓아 보옵니다.
우리를 갈라 놓았던
그 가시밭길 앞에서
떨어지는 낙엽 조리밟고
눈시울만 적시옵나니……

차디찬 밤공기 마다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수 백번 되새기며
젖은 얼굴 떨구고
고대하옵니다.



동굴의 일대기

이 소 현

(대장여고 1학년)

강산이 변해도 다섯 번.

눈물도 설움도

고목나무 되었네.

살아 생전 우리 할배

눈물로 밥 줄 잊고,

칠조망 앞에 무릎 굽혀

목놓아 울부짖네.

어미 잃은 자식 마음

보고 싶어 눈병나도

껴안을 수 없는 어미 품 속

체온 그리워하네.

강산과 함께 주름이 가득했던

우리 할배.

고목나무되어



한숨을 쓴 약으로 삼키었거늘.

할배의 합박꽃 웃음 보고파
할배 닭똥눈물 안 보고파
작은 날개 꾀꼬리 돼보았지만
가슴 한 곳 머리숙여
불효자 눈물괴니,

살아 생전 짐 덜어주지 못한 손녀,
할배 넋 달래주고 싶네.

보고파, 보고파
우리 할배 보고파 불러봐도
어미 품 속 있을 할배 생각에
소리를 낮추네.

우리 할배, 어미 품으로 돌아갔으리라.
할배 그리던 어미 품으로.



화분의 통이

고 은 아

(삼성초 5학년)

창가에 두 개의 화분을
나란히 놓고

하나의 화분에는 물외씨앗을
또 하나의 화분에는
오이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거름을 주며
고이 키워 놔두었다.

햇살이 빛추어 주고
비가 내려오고
한달이 지나자 싹이나고
덩쿨이 생겨 서로
엉겨붙어 하나가 된 덩쿨

등교를 하자, 친구들의 함박웃음
'야! 저 꽃 좀봐?
벌써 꽃이 피질 않을텐데.
놀라서 보니 물외의 꽃은



오이꽃, 이었다.

서로 이웃이라고 밟았다고……
아직 꽃이 피지않은 물외를
위로하려 했던것 일까?

오이의 꽃처럼 두 개의 덩쿨처럼
남과 북은 이렇게 사는데……
물외처럼 살림이 부족한 북쪽
오이꽃처럼 쌀을 보내준 우리……

하나가 되어버린 덩쿨처럼……
물외를 위로해 주려는 오이처럼
모두 통일을 위한 준비자세

개구리처럼 뛰어오를 것을
다짐하는 글……
풀어도 풀리지 못할 덩쿨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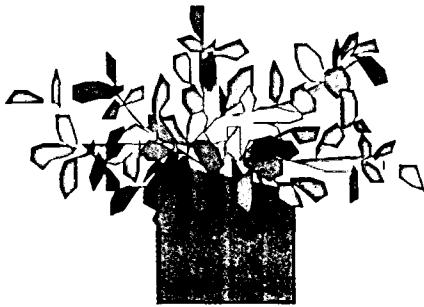
아님 덩쿨이란 말대신



우린 한민족

오이꽃이란 말 대신
우린 한겨레

내가 바라는건
'당신들이 행운'



내 작은 엽서를...

윤 주 희

(고산중 2학년)

노랗게 저무는 동그란 해는
산을 물들이고 바다를 물들이고
붉은 빛 노을이 아름다워라.
저기 저어기 북녘땅에는
울타리 너머 순이가 사는 곳에는
노을은 보이니, 바다는 보이니
팬스레 궁금해져 내 작은 엽서에
산수를 담아내고 마음을 담아내고
고이 접어 바람편에 보낸다.

일곱빛깔 구름다리 뜰 적엔
순이와 미끄럼 타고 싶더라.
보고픈 마음만 굴뚝만큼
울타리 너머 순이에게
내 목소리는 닿지 않는다.
쓸쓸한 마음 또 한번 작은 엽서
바람아 바람아
순이에게 전해 주거라.
순이 손에 쥐어 주거라.



눈 앞에 북녘땅 순이의 작은 집
날카로운 울타리 벽은 너무 높아
손을 뻗기가 아프고 힘들어
앞에 두고도 내 가지 못하니
그리움만 호수 가득
쓸쓸히 엽서에 담아낸다.
순이에게 담아낸다.
그래도 언젠가
울타리가 무너지면
모두가 웃게 되면
그 땐 순이와 함께
구름다리 위를 거닐 수 있겠지
들이 함께 마주앉아
노을도 보고 바다도 보고

나중에 나중에라도
다시 만나게 될 터이니
그 때만 기다리련다.
그 때만, 그 날만,
나 늙어 죽어버린대도
그 때만 기다리련다.

바람아 오늘도
내 엽서 전해주거라
내 작은 엽서를
그 날이 올때까지만…….

풀잎의 편지

정 진 우

(제주제일고 1학년)

한 뿌리에서 뻗어나서
봐라만 보아도 기분좋게 할 만큼,
사이가 좋은
풀잎이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뒤……
그들의 사이를 시샘해서일까?

먼 외지에서 불어온 두줄기의 바람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바람이 서로 뒤엉키자
풀잎들도 뒤엉키며 서로 부딪쳤다.
그 뒤 찾아온 침묵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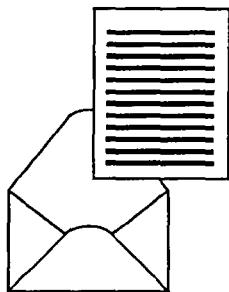
또 다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풀잎들은 바람의 수에 말려
서로 뒤엉키며 싸운 것을 후회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냥 둘 수 없어



풀잎 사이의 뿌리는 하나이니,
더 이상의 부딪힘은 있어선 안된다.
아니, 그 부딪힘조차…….
서로를 쓰다듬는 부드러움 몸짓.

“친구야, 이젠 아무리 세찬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말고 서로 껴안아서 이겨내자!”



복^복친구를 닮은 백구

임 청 하

(동광초 6학년)

기다려지는 토요일 오후
할머니댁 놀러가지요.
저 멀리서 달려오는 복실이 모습
할머니보다 먼저 반겨주지요.

귀여운 강아지!
나도 반가워서 포근히 안아주지요.

쫄랑쫄랑 따라와서 한참 놀다가
제 친구를 찾아서 집을 나서요.
나도 덩달아 따라갔더니

웬 걸……
커다란 큰 대문 앞에
늠름한 하얀털의 백구가 있었어요.

할머니 목소리에 되돌아서면
나를 따를까 친구를 따를까
망설이는 복실이



“복실아”하고 힘차게 부르면
따라오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덜커덩 소리
긴 줄에 묶인 커다란 백구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 쳐 보지만
쇠사슬 소리만 철컹철컹!
불쌍한 백구를 생각해보니
북한의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복실이 따라서 오자고 하면
목에 묶인 긴 줄이 도로 당기고
힘내어 왕왕왕 소리지르면
쇠줄에 발이 감겨 넘어지기만 하네
불쌍한 백구야, 불쌍한 친구야!
자유없는 북한 친구들 생각하면서
한 동안 북녘 하늘 훑겨보았네

자유로운 복실이와 백구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 마음껏 돌 듯이
친구하고 짹이 되어 자유스럽게

백두산을 오르고
한라산을 누비며
우리들의 맑은 꿈을 키워갈텐데
통일이 이렇게도 어려운 건지
백구를 끓어 놓은 주인보다도
더 독한 마음을 알 수가 없네

길다란 쇠사슬에 묶인 백구는
컹컹대며 풀어달라 애원하지만
뼈다귀 하나 던져주고 시끄럽다고
대문 밖만 쳐다보는 흰털 백구는
오고가는 친구 보며 애만 탑니다.

큰 집 주인 아저씨를 알미워하며
백구 목에 걸린 쇠사슬부터
빨리 빨리 풀어줘야지
복실이와 자유롭게 놀게 해야지

친구야!
멀리서 마음을 열고 우리들의



작은 꿈과 바램도
하늘에 높이 소리쳐보자!

친구야!
활짝핀 해맑은 웃음을 찾아
하루빨리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자!



소 망

박 상 이

(김녕중 3학년)

검은 하늘 높다랗게
살짝 걸린 민들레빛 고운 달아
그 곳에선 보이니?

부우연 안개바다 속
시퍼런 철조망 뒤
꿈결에도 그리는 그곳

칠 천만 꽃같던 네 피닮은 노을위
아득한 밤이 내리면
가만히 너 오를 때
살며시 애타는 이 몸도 끌어올리렴.

어둔 밤 하늘 저편
설움에 찌들어 빛마저
바래버린 잣빛 달아
너는 알고 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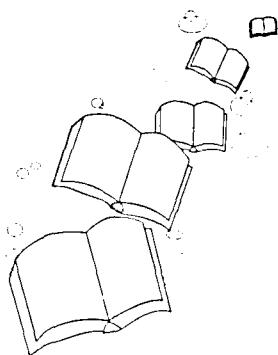
그리움이 가로등 되고
슬픔만 한없이 펼쳐진



긴 긴 분단의 길

가슴에 소망 담아
꿈을 향해 항해하는
새 하얀 뜻단배야

너의 그 머언 길 접는 날
저 멀리 노오랗게 뜰
너와 나의 햇님을 볼 수 있겠지.



겨울바람

이 선 미

(제일중앙여고 2학년)

겨울 바람을 아는 자라면
바람이 찬 이유를 묻지 말거라.

남은 상처가 많아서일까
시린 가슴이 앓아서일까
반세기 그어놓은 검은선이
짙게 드리어 전하더라도
다시 달릴 기차속에 웃을거라면
바람이 찬 이유를 묻지 말거라.

앙상한 뼈대만을 갖춘 채
강냉이죽 한 그릇을 겨우 얻고
압록강을 넘나드는 가여운 이를
제 품으로 꼭 안아주려 한다면
바람이 찬 이유를 묻지 말거라.

눈물과 원망과 고통을 담고
가시밭을 넘은 이의 희망일테니
낯선 두려움을 잊혀주려 한다면
바람이 찬 이유를 묻지 말거라.



따뜻한 남녘땅의 봄기운이
햇살과 함께 보낼 씨앗에
통일의 희망과 사랑을 담을테니
겨울 바람을 진심으로 아는 자
바람이 찬 이유를 다시 묻지 말거라.





제7회 학생통일 글짓기대회 입선작

너에게 보내는 평화의 날개

- 운문집 -

초판인쇄일 2002년 10월

초판발행일 2002년 10월

발행처 통일교육원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7021

홈페이지 주소 www.uniedu.go.kr

디자인 · 인쇄 현프린트

전화 02)2263-0329